

권두시

김 유 조



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 건국대 명예교수(부총장 역임),
코리아드림 문학회장, 한국작가 주간

그해 여름의 아리랑과 아미망

뽕안 먼지의 국도에는 미군 후퇴 차량이 가득하고
차창으로 노랑머리 병사가
우리의 반만년 아리랑을
“아미망 아미망 아미미요”로 서툴게 불러 무섭다

피난 보따리를 든 소년과
징병 간 남편의 편지를 품에 지닌 젊은 아낙은
간담만 서늘하던 그해 유월
이 땅의 여름은 항상 수난의 계절이다

왜란 때는 평양성도 여름에 참혹히 함락되고
겨울 호란도 여름이 되자 젊은 남녀들은
굴비 엮이듯 청나라로 끌려갔으며
신미양요도 여름에 당한 느닷없는 변란
임오군란, 동학농민운동도 모두 여름에 일어난
목숨 건 민중 운동이었지

경신년 대기근 때처럼 치산치수가 안 된
몬순 기후대의 햇빛은 이 땅
처참한 아사의 현장에는
호열자와 각종 역병 염병도 뒤쫓아 왔으니
불쌍한 민초들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났구나

일천구백십년의 경술국치는
이 땅의 근세 비극사에서

마지막 썩기가 박히는 민족의 참사

서른여섯 해의 와신상담 끝에 광복을 품에 안고
분단의 비애와 6.25 여름 민족상잔을 제물 삼아
반 토막이나마 반만년 역사에서 세계사에 우뚝 서니
광화문의 <아리랑 페스티벌>
세계를 누비는 BTS 방탄 소년의 춤사위와 노래 함성
한의 탄식이 흥의 가락 되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세계인이 부르는 아리랑 흥타령
한민족 문명과 문화의 뱃노래
한강 물결에 그윽하다.

코리안드림문학세계의
지평확장

코리안드림문학 26년 상반기 문학포럼 및 특강

일시: 2026년 5월15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박물관 체험관 대강당

주최



국회의원 김준혁

후원



리스본행 야간열차



오 경 자

《수필문학》천료 등단,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권한대행,
한국문인협회회원(감사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고문,
신일교회(예장) 은퇴권사

격변기의 사회에서, ‘동지’, ‘신념’이란 용어는 특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간직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낱말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신념 없는 사람이 되고 싶겠는가. 든든한 동지와 함께라면 힘든 세상을 나아가기가 한결 수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좋은 동지’를 갖고 싶기도 하고,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든든한 동지’이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소용돌이치는 근현대 역사를 헤쳐 나오는 동안, 어쩌면 이 좋은 낱말들이 특정 집단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된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시간을 메꾸어야 할 상황이 생겨, 시간을 보내기에 매우 적당한(?) 영화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찾아간 영화관도, 영화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는데, 제목이 어

편지 낭만적일 것 같은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선택했다. ‘포르투갈’을 못 가서 안달이던 차에 그 목마름도 좀 덜 것 같고, ‘야간열차’가 어딘지 모르게 구미를 당기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영화는, 평범한 남자가 평화롭게 간단한 아침을 먹던 중 무심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놀라 뛰쳐나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주인공인 그 남자는 자살하려는 여자를 구하려다 놓치고, 그 여인의 빨간 코트를 집어 든 채, 다소 늦은 출근을 한 고등학교 교사다. 허둥대는 선생님의 이상한 모습에 어리둥절한 학생들 앞에서, 의연한 척 수업을 시작하지만, 이내 또 그 여인의 모습이 멀리 보이자 교실을 빠져나와 그 코트를 움켜쥐고 뛰기 시작한다.

그 여인 대신 얻게 된 책 한 권을 코트와 함께 들고, 그 책의 주인이었던 여인의 행적을 찾기 위해 서점을 찾아간다.

엇그제, 어느 여인이 사 갔다는 것, 출판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책방 주인을 뒤로한 채 그 진원지를 찾아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몸을 실는다.

그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적과 그들을 찾아 증언을 듣는 형식으로 짜인 영화는 리스본과 포르투갈 바다의 경관을 후원 삼아 볼거리도 제공하며 야릇한 긴장감을 더해 가면서 관객을 끌고 가는 데 성공한 편이다.

포르투갈의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줄거리는 역시 젊은 학생들의 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면서 그들의 애증 어린 과거를 훑어가는 형식이다.

동지를 지키기 위해 손가락이 무참히 잘린 피아니스트, 그는 깨진 꿈을 가슴 속 깊이 묻고 절망의 삶을 살다가, 이제 늙고 병들어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다.

그의 조카딸이 호기심에 찬 이 방문객을 안내하다가 사랑이 싹터 끝
내 주인공은 리스본발 야간열차에 몸을 실지 못한다.

그 책의 저자는 민주화 운동의 동지 중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동
지는 저자에게 애인을 뺏기자 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떠난 후 무
엇을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골초가 되어 폐인에 가까운 모습으
로 살아간다.

책의 저자는 의사가 되어 자신들을 고문하고 동지들을 괴롭히는 형
사 ‘리스본의 악마’가 사경에 처하자, 위기에서 목숨을 살려내는 의
사의 소임을 다한다.

그 일로 동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다른 면으로 힘든 세월을 살
다가 지병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 오빠의 한을 가슴에 대신 묻은 여동생이 평생 자신의 내면에 박제
된 오빠의 환상을 위해 책을 엮어내고 역사를 전한다.

극히 적은 부수의 한정판을 냈건만 스위스의 서점에서 그 악마의 손
녀딸이 우연히 그 책을 손에 넣게 된다.

읽다가 양심의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 강에 몸을 던지려다가 이 주
인공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진 것이다.

두 동지의 애인이었던 운동권의 전설적 여인을 경관 좋은 바닷가 별장
에서 만난 주인공은 실타래를 다 풀기는 했으나, 유일하게 건강한 노년
을 보내는 그를 보면서 착잡하고 묘한 기분을 안고 귀국을 결심한다.

- 리스본역에서 여인의 은유적인 사랑 고백, 가지 말라는 말보다도
‘안 가면 안 되겠느냐’는 속삭임에, 마냥 허공을 보며 서 있던 그 남
자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인상적이다.

-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신념이 무엇이고 동지가 무
엇’인지, 그리고 ‘인생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와 무게를 지닌 것’인
지 등의 화두를 던져주는 영화 <리스본행 야간열차> 한 편을 뒤로하

고,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마음이 형언하기 어렵게 복잡하면서, 한편 미소를 짓게 한다.

- 한세상 살아오면서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는 그런 동지가 되어 본 적이 있는가? 신념을 위해 목숨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했던 기억이 있는가?

둘 다 아니다. 소신에 따라 앞장선 일은 많지만, 그 일로 목을 내놓아야 하는 지경까지 몰려 본 적은 없다.

- 왜, 여자라고 차별받아야 하느냐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열을 올린 것도 불꽃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불꽃 같았던 기억은 어느 구석에도 없는 인생이었다.

- 사랑은? 그 또한 가슴을 불태워 본 기억이 없다. 독신주의를 좀 고집하다가 이내 꺾이고, 남들처럼 한 남자 만나서 애 낳고 한 가정의 중심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어미로 충실하려 애썼고, 아직은 대과 없이 살아온 셈이다.

남편을 연전에 먼저 떠나보낸 후 새삼스럽게 그리움에 떠는 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일는지 모르지만, 남편이니 소중했고 서로 돌밖에 모르며 아웅다웅 살아왔다.(《있어 거기 내가》(오경자, 2014, 교음사-수필문학사 수필선집 546)(문맥 구성 중 일부분 윤문潤文했음을 밝힙니다)

<영화는 인생의 축도이며 한 시대의 기록>

‘영화映畵’는 우리 인생사의 축도縮圖이다. 영화 속에서,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거기 바로 내가 있기에, 함께 웃고 울고 한다.

이렇게 영화는 그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에, 역사의 기록자이기도 하다. 아울러 시사성과 선도적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서) 더욱 사랑받는다.(‘작가의 말’ 중에서 부분 발췌 인용)

노래로 듣는 한국근대사



농암 김 중 위

호 농암, 헌정회홍보편찬 위원장, 영토문제특별위원회 위원장, 12~15대, 4선 국회의원, 초대 환경부장관, UN환경계획 한국부총재, 한강문학회 상임고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은 참으로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신라시대에 이미 우리는 3명의 여왕을 경험했고, 서양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시대에 우리는 삼국통일 즉 민족 통일을 이루어 냈다.

이민족異民族으로 부터도 수많은 외침을 받으면서 곳곳이 견뎌낸 저력을 발휘했다. 그들은 침략하여 약탈하고 굴복은 시켰어도 온전히 다스리지는 못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병탄한지 10년째 되는 1919년에 이미 우리는 해외에 민립民立 정부를 세우고 일본과 싸우기 시작했다.

우리 민족이 갖는 이런 끈질김과 저항정신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끊임없는 외침外侵이 가져다 준 담금질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거론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의 예지라

고도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비상한 사태에 직면하면 언제나 번득이는 예지로 노래를 불렀다. 참요讖謠다. 조선조 숙종 때에는 장희빈의 농간으로 인현왕후가 폐비가 되자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 철일세/ 철을 잃은 호랑나비/ 오락가락 노닐더니/ 제철가면 어이 놀까”

장희빈이 아무리 그래봤자 한때 뿐 결국은 폐비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노래하였던 것이다.

결국 역사는 그대로 되었다.

한말에 한창 서양세력이 판을 치기 시작할 무렵 우리 민중은 느닷없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연평도 바다에/ 갈바람이 분다/ 엘화에야 네야 예헤야/ 나이리 이허리/ 매화로구나”

경기민요인 <매화 타령>이다. 그러나 단순한 민요만은 아니다. 1866년(고종3년)에 있었던 병인양요丙寅洋擾를 예언한 참요였다.

병인년은 당시 조선은 물론 서양 사람에게도 끔찍한 한 해였다. 그해 7월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해적선이라 하는 학자도 있다) 라는 미국상선이 대동강을 타고 올라와 평양주민들을 살해하고 약탈하자, 화가 난 주민들은 배를 불사르고 선원 모두를 살해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천주교도를 앞세워 조선을 침략하는 것으로 알고 그때부터 국내에 있는 9명의 프랑스 신부와 ‘남종상’ 등 8천명에 달하는 신자들을 처형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 정부는 그해 9월 천진에 있는 극동함대와 천여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강화도를 점령하고 40일 동안이나 체류하면

서 강화도에 있는 궁궐을 불태우고 그곳에 보관되어있던 각종 보물과 도서들을 약탈하고 물러났다.

이런 변란이 있을 것을 우리 백성들은 미리 알아차리고 매화타령을 불렀던 것이다.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1894년 갑오년에 고부 군수 조병갑趙秉甲의 심한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때 동학의 고부 접주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전봉준全琫準’이 농민군을 진두지휘하면서 고부를 점령하고 전라북도 일대를 석권하였다.

이때 나온 노래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였다. 여기서 ‘파랑새’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건너온 청나라 군과, 청군 출현에 뒤따라 들어온 일본군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녹두밭’은 농민군을, 청포장수는 조선민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노래는 다음의 노래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보리”

이 노래는 무슨 뜻인가! 우선 ‘가보세’는 갑오년을 말한다. 즉 ‘가보세’는 ‘갑오세甲午歲’다. 갑오년에 일어난 농민운동을 민중들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갑오년에 일으킨 농민운동을 갑오년(1894)에 성공시키지 못하고 을미년(1895)으로 넘어가면 병신년(1896)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민중의 예지적 호소였다.

을미년은 어떤 해요 병신년은 어떤 해인가!

을미년은 일본군에 의해 민비가 살해된 해요, 병신년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해다. 한 나라의 군주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남의 나라 대사관저로 망명하여 숨어 지내는 형국의 한해였으니 ‘병신되면 못가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필자가 초등학교 1학년, 해방되던 해에는 이런 말이 떠돌아 다녔다.

“조선아 조선아/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고/ 조선은 조심해라/ 일본 놈 일어선다”

어쩌면 이리도 운율이 척척 맞을 수 있을까!

《노래로 듣는 한국 근대사》(한강문학刊), 발췌

김중위 약력

경북 봉화 출생(1939. 10. 28), 봉화초등학교, 양정 중·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대구대학교 명예행정학 박사
고려대 및 명지대 강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석사과정) 초빙교수 역임
《사상계》편집장, 주)동립산업 상임감사
〈민정당〉정책국장, 정책연구실장, 정책조정실장, 정책위원회 의장 및 대변인, 민족사관정립특위 위원장
4선 국회의원(12대, 13대, 14대, 15대),
국회에결특위, 정무위, 정치개혁특위, 제도개선특위, 경제종합대책특위 위원장
초대 환경부 장관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국제PEN 한국본부 고문,
한국시조협회 고문, 《한강문학》상임고문
UNEP한국부총재, 〈헌정회〉영토문제연구특위 위원장, 월간 〈헌정〉편집인
〈경남일보〉, 〈대전일보〉, 〈중부일보〉 칼럼니스트 및 시인, 수필가
역서, 칼럼집 : 《부와 빈곤》(G. 길더), 《정치와 반정치》, 《의회주의의 몰락》, 《권력과 부패》, 《마음의 티끌을 닦으며》, 《산 너머 산이지만》, 《목소리를 낮추어서》, 《순간을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눈총도 총이다》, 《노래로 듣는 한국근대사》, 《탄허 스님과 시애틀 추장》, 《김중위의 영토이야기》 외
수훈 및 수상
청조근정훈장수훈, 익재(이제현) 문학상 수상, 자랑스러운 고대정경인상, 경북예술헌상 특별상 수상, 산귀래문학상 수상 외

워즈워드의 詩 〈I Wandered Lonely as a Cloud〉와 한국의 詩 비교 분석



桑谷 이기운

《한강문학》(2018) 시조부문 등단, 평론부문 등단(30호, 2023, 신년호), 《한강문학》 편집위원, 한강문학회 총무 이사, Headhunter, 漢詩詩人, 時調詩人, 文學評論家, 民調詩人, A Poet, 문학평론: 〈단장시조單章時調(Sijo)의 부활 및 세계화〉(《한강문학》PDF38호, 2025.봄호), 〈漢詩의 자주화自做化를 향한 방안〉(《한강문학》PDF39호, 2025.여름호), 〈한국의 시, 외국어 번역을 위한 제안〉(《한강문학》PDF40호, 2025.가을호) <https://blog.naver.com/kwoonlee>

윌리엄 워즈워스의 詩 〈I Wandered Lonely as a Cloud〉는 한 마디로 자연과의 교감,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기쁨과 회상을 통해 얻는 ‘치유의 힘’을 아름답게 노래하였다. 한국에 〈Daffodils〉로 알려진 이 詩는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시로 꼽힌다.

본고에서는 ‘Daffodils’가 발표되었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한국의 시 중에서 몇 편을 선별, ‘Daffodils’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시인들의 표현방식’과 ‘꽃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감성’ 및 ‘치유의 방식’ 등 특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 . 〈Daffodils〉 원문 및 한역韓譯

〈I Wandered Lonely as a Cloud〉(Daffodils)

I wandered lonely as a cloud
That floats on high o'er vales and hills,
When all at once I saw a crowd,
A host, of golden daffodils:
Beside the lake, beneath the trees,
Fluttering and dancing in the breeze.

Continuous as the stars that shine
And twinkle on the Milky-way,
They stretched in never-ending line
Along the margin of a bay:
Ten thousand saw I at a glance,
Tossing their heads in sprightly dance.

The waves beside them danced; but they
Out-did the sparkling waves in glee:
A poet could not but be gay,
In such a jocund company:
I gazed—and gazed—but little thought
What wealth the show to me had brought:

For oft, when on my couch I lie
In vacant or in pensive mood,
They flash upon that inward eye
Which is the bliss of solitude:
And then my heart with pleasure fills,
And dances with the daffodils.

계곡과 산 위로 높이 떠다니는
한 조각 구름처럼 외로이 나는 헤맸다네.
그때 문득 한 무리의,
아니, 일 군群的 황금빛 수선화를 보았다네.
호숫가 나무 아래
미풍에 나부끼며 춤추고 있는.

은하수에서 빛나고 반짝이는
별들처럼 연이어,
수선화들은 만灣의 가장자리를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네.
한눈에 보아도 일만 송이나 되는 수선화들이
활기차게 춤추며 머리를 까닥이고 있었다네.

수선화들 곁 물결도 춤추었다네. 하지만
수선화들은 반짝이는 물결보다 더 큰 환희에 차 있었다네
이런 유쾌한 무리 속에서
시인이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보고, 또 보았다네. 하지만
그 광경이 내게 가져다준 행복은 생각지도 못했다네.

종종, 내가 멍하니 혹은 사색의 분위기에 잠겨
침상에 누워 있을 때면,
수선화들은 고독의 황홀경이 허락하는
마음의 눈[心眼]에 반짝이기 때문이라네.
그러면 내 가슴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춘다네.

(여국현 번역-시인, 영문학 박사)

- <Daffodils>와 한시韓詩 및 한국 詩와의 비교

▲김상용의 시 <산화山花>와의 비교

一陣東風吹
萬片山花落
若問落花情
隨風過前壑

한 줄기 동풍이 불어오니
산 꽃 만 조각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꽃의 마음을 묻는다면
바람을 따라 앞 골짜기를 지나가네.
(《선원유고仙源遺稿》(김상용)에 작품이 전해짐)

1. 핵심 비교 구절

‘Ten thousand saw I at a glance,/ Tossing their heads in
sprightly dance.’ <I Wandered Lonely as a Cloud>
‘수만 송이 수선화가 머리를 흔들며 추는 활기찬 춤’

‘일진동풍취一陣東風吹/ 만편산화락萬片山花落’ <山花>
‘한바탕 동풍이 불어오니, 만 점의 산 꽃이 흩날리네’

2. 세부 비교 분석

① 시각적 역동성: ‘춤’과 ‘흩날림’

- 워즈워스는 수선화가 바람에 ‘춤을 춘다(Dancing)’고 표현하며 정적인 자연에 강한 생동감을 부여했다.
- 김상용의 시에서도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단순히 ‘지다’라고 하지 않고, ‘만 편(萬片, 만 개의 조각)’이 일제히 움직이는 장관으로 묘사했다.

- 공통점: 자연을 고정된 풍경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로 인식함.

② 고독의 전환: 'Solitude'와 '閑情'

- 워즈워스는 처음에는 '구름처럼 외로이(Lonely as a cloud)' 떠돌았으나, 수선화를 만난 후 그 고독은 '축복받은 혼자 있음(Solitude)'으로 바뀐다.

- 김상용은 산속에서 홀로 꽃을 바라보는 행위는 세속의 번뇌를 잊게 하는 '한정閑情(한가로운 정취)'으로 이어진다.

- 공통점: 인간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 고립감이 자연을 만남으로써 영적인 충만함으로 치유된다.

③ 기억과 잔상: 'Inward Eye'와 '餘韻'

- 워즈워스 시의 백미는 마지막 연에서 소파에 누워 '내면의 눈(Inward eye)'으로 수선화를 다시 떠올리는 장면이다.

- 김상용의 시 역시 꽃이 지는 찰나의 아름다움을 포착함으로써, 꽃이 진 뒤에도 시인의 마음속에 그 붉은 빛이 영원히 각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3. 결정적인 차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 워즈워스(낭만주의)의 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심리적 위안과 기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즉 인간 중심적인 감동에 집중한다.

- 김상용 한시(물아일체)는 꽃이 지는 현상을 보며 '나도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는 '합일습一の 경지'를 지향한다. 꽃이 떨어지는 슬픔 보다는 그 순리에 몸을 맡기는 달관의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워즈워스는 누워서 시인이 그 수선화를 떠올리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한다. 하면서, 김상용은 자신의 마음을 꽃에 묻지만, 바람이라는 제 3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실어보고 있다.

즉 워즈워스는 수선화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묘사했지만,

김상용은 떨어지는 꽃에 관한 만감을 제 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황李滉의 시 <도산월야영매陶山月夜詠梅>와의 비교

梅花開欲盡
明月滿前山
不見人來處
唯聞落葉聲

매화꽃이 거의 다 피어가고
밝은 달빛이 앞산에 가득한데
사람 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린다

1. 자연과의 물아일체物我一體: 이황, ‘도산월야영매陶山月夜詠梅’
워즈워스가 바람에 물결치는 수선화 군을 보며 ‘A poet could not but be gay,’(시인은 즐겁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퇴계 이황 역시 매화를 단순히 꽃이 아닌 인격적인 교감의 대상으로 보았다.

- 비교 포인트: 워즈워스가 수선화를 보며 고독을 잊었듯, 이황은 달밤에 매화를 마주하며 깊은 정신적 유대감을 느낀다.

- 핵심 구절: 워즈워스는 ‘And then my heart with pleasure fill’이란 구절로 수선화와 시인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표현하지만, 이황은 ‘唯聞落葉聲’(오직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린다)로 간접적인 교감을 표현했다.

- 공통점: 자연물을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닌, 내면의 평화를 주는 동반자로 인식함.

2. 비교 분석

수선화와 매화도 봄에 피는 꽃이다. 매화가 좀 더 일찍 피고, 수선화는 그 초봄에 피어난다. 제주도에서는 설중화라고 할 정도로 이른 봄에 피어나는 꽃이다.

이 두 시를 비교한다면, 워즈워스는 초봄 햇볕이 피고 따뜻하기 시작할 때 들판을 걸으면서 들에 가득 핀 수선화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이황은 이른 봄 추위 속에서 달밤에 매화를 보면서 읊은 시이다. 워즈워스는 한낮에 멀리 바닷가의 만에는 잔잔하고 푸른 바람, 들판은 초록색, 만 옆으로 노란 수선화 등등 한낮에 보이는 다양한 색이 이미지로 떠오른다.

그러나 이황의 시에는 어두운 밤에 달빛, 앞산에 아직 남아 있는 흰 눈, 하얀 매화가 연상된다. 즉 화려하지 않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워즈워스는 한낮의 수채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이황은 담담한 수묵화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워즈워스가 자신과 꽃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면, 이황은 중간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관계로 설정했다.

▲조지훈의 시 〈낙화落花〉와의 비교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라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라

1. 지는 꽃의 아픔을 노래한 조지훈의 〈낙화落花〉

워즈워스가 수선화의 ‘춤’에서 기쁨을 얻었다면, 조지훈은 꽃이 지는 ‘움직임’ 속에서 깊은 정신적 평온을 찾았다. 시인 조지훈은 지는 꽃을 보면서 느꼈던 서운함, 또는 아픔을 승화시켜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찾는다.

- 비교 포인트: 워즈워스가 수선화의 역동적인 춤을 보며 ‘나도 모르게 즐거웠다’고 한 것과 대조적으로, 조지훈은 꽃이 지는 정적인 슬픔을 ‘귀한 손님이 오는 것’처럼 정중하게 맞이한다.

- 공통점: 두 시 모두 자연의 변화를 단순한 현상이 아닌, 시인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정신적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 핵심 구절: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라’

2. 비교 분석

워즈워스의 시의 배경은 한낮인데, 조지훈의 시 ‘낙화’는 시간 배경이 밤이다. ‘귀촉도’, ‘촛불’ 등의 시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밤늦은 시간으로 생각된다. 이른 봄 산에 진달래가 피는 밤이 시간적 배경이란 생각이 든다. 당시는 전쟁 후의 어려운 시기라 전등도 쓰지 못하고 촛불을 켜야 하는 시대임이 느껴진다. 시인은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고자 하나, 꽃이 바람에 지는 것을 생각하니, 촛불마저 끄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조지훈의 시의 배경이 밤이기에, 그 이미지를 찾는다면 담담한 색을 가진 무채색으로 표현한 수묵화 같은 영상을 보여준다.

▲정호승의 시 〈수선화에게〉와의 비교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토요일도
너를 보고 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1. 외로움을 시로 위로하려는 정호승의 〈수선화에게〉

이 시는 워즈워스의 시와 ‘수선화’라는 같은 소재를 쓰지만, 고독을 대하는 태도에서 흥미로운 대비를 보여준다. 워즈워스가 수선화란 꽃을 노래했지만, 정호승의 시는 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꽃이라기보다는 신화의 ‘나르시소스’를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인다. ‘나르시소스’가 혼자 자기 모습을 사랑하며 물에 빠져 죽어서 수선화가 되었다 하지만, 워즈워스는 죽은 후에 피어난 수선화를 소재로 잡고, 정호승은 죽기 전에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미소년에게 주는 위로의 시라는 느낌이 든다.

- 비교 포인트: 워즈워스의 수선화는 시인의 외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지만, 정호승의 수선화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임을 일깨워준다.

- 공통점: 수선화라는 꽃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탐구한다. 워즈워스가 고독의 치유를 노래했다면, 정호승은 고독의 수용을 노래하고 있다.
- 핵심 구절: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2. 비교 분석

정호승의 ‘수선화에게’는 배경 시간이 낮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랑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감상적으로 노래했다. 그래서, 시를 낭송하다 보면 가을을 느낄 수 있다. 비록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가라’란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낙엽이 지고 바람이 부는 11월을 연상시키는 시로 생각된다. 감상적으로 애상적으로 고독한 삶을 위로하며 달래는 어조로 시를 썼지만, 비교했던 다른 한시나 조지훈 선생의 시보다는 색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무채색의 느낌을 풍기고, 여백을 드러내고 있다.

결론

워즈워스의 시를 우리나라의 한시나 현대시와 비교한다면, 워즈워스의 시는 봄날 도화지를 가득 채운 수채화이거나, 캔버스에 여러 색조를 써서 가득 채운 그림의 느낌이 난다. 그러나, 감상용, 이황, 조지훈, 정호승의 시는 화선지에 여백이 남아 있는 수묵화의 느낌이 난다. 정호승 시인의 작품이 다른 우리 시인들의 시보다 색조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비록 색조를 넣은 한국화라 하더라도, 은은하고 열은 느낌의 색조를 띄고 있다. 화려한 색조의 유채화에 비교한다면, 그 시 또한 담담한 수묵화의 느낌이 난다.

워즈워스는 구름처럼 외로이 떠돌다 호숫가(또는 바닷가 만)에서 수선화를 만났고 김상용은 산골짜기에서 고요히 떨어지는 산꽃을 마주했다. 조지훈은 산 중에 있는 작은 집에서 주렴 밖으로 내려다보면서

별이 지는 시간에 주렴 밖으로 내려다보며 지는 꽃을 바라보고 있다. 반면에 정호승 시인은 직접 꽃을 본 것보다는 외로움에 겨워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려 하고 있다.

워즈워스의 시는 6행을 한 연으로 한 4연의 시이다. 우리의 시작과 비교한다면 다소 장편의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인의 시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반면에 우리 한시는 김상용이나 이항의 한시는 ‘5언 절구’에 해당 된다. 한글 자를 한 단어로 친다 하더라도 20단어 이하로 시인의 시상을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한시에서는 상당히 시상을 압축해서 표현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시에서는 꽃과 시인과의 관계를 표현하려고 하지만, 최대한 절제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인의 직접적인 감상, 시인과 꽃과의 관계들도 은유를 통하여 단순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시인의 시상을 상당 부분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독자의 영역으로 넘기면서 작품을 쓰게 된다.

조지훈, 정호승 시인의 시도 현대시라고 하지만 아주 간결하다. 낙화는 2행 6연의 총 12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6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수선화에게는 10행 35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워즈워스의 시는 관사와 접속사 등을 제외하더라도 대략 100단어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비교해서 사건의 전개와 묘사들을 좀 더 상세히 할 수가 있다.

또 그렇기에 워즈워스의 시는 낭송할 때 리드미컬하게 읽으면서 시인의 감성을 전달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시는 여백을 두고 낭송을 하면서 독자가 스스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면을 가득 채운 유채화 같은 워즈워스의 시와 옅은 색조의 많은 여백을 남겨야 하는 수묵화 같은 우리 한시, 또는 우리 현대시는 낭송 방식조차 작품의 특성이 드러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1770~1850)

영국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와 함께 출간한 《서정가요집》(Lyrical Ballads, 1798)을 통해 낭만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감정을 평범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했으며, 1843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영국 왕실의 계관시인(Poet Laureate)을 지냈다

- 김상용 金尙容(1561~1637. 2. 16(음력 1. 22))

조선시대 중후기의 문인, 시인, 관료, 정치가, 서예가로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관작은 보국승록대부 의정부우의정, 판돈녕부사에 이르렀고,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되자 문루에 화약을 쌓고 불을 붙여 자분自焚, 순절하였다.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 풍계楓溪, 계옹溪翁, 시호는 문충文忠,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1614년(광해군 6년) 8월 27일 위성원종공신 1등(衛聖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 이황 李滉(1501~1570)

호는 퇴계退溪이며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다. 《성학십도聖學十圖》와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을 통해 조선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이다. 그는 ‘도산서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영남학파를 형성했다.

- 조지훈 趙芝薰(1920~1968)

본명 조동탁,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 3인으로 불린다. 그는 전통과 민족적 색채를 바탕으로 자연, 불교, 선적 세계를 노래했으며,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국문학자로, 한국학 연구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 정호승 鄭浩承(1950~)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으로, ‘슬픔의 시인’이라 불리며 인간의 외로움과 사랑, 희망을 따뜻하고 간명한 언어로 노래해온 시인이다. 그는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침성대〉로 등단했으며, 이후 〈슬픔이 기쁨에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등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 시가詩歌의 7.5조는 한국의 율조律調

- 한국인 왕인王仁은 일본 와카[和歌]의 창시자創始者

문학박사 홍윤기洪潤基¹⁾

1. 7.5조에 영향 받은 한국 근대시

한국 근대시近代詩가 일본 근대시에 의해서 영향받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한국 근대시는 특히 일본 시가詩歌의 7.5조의 영향을 받았다.²⁾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5.7조의 영향도 입었다.

그렇다면 7.5조와 5.7조라는 율격律格은 본래 일본 시가의 전통적인 율조인가. 아니면 그것이 고대古代 한국韓國으로부터 일본으로 유입된 것인가를 규명해야만 한다.

본고는 박사博士 왕인王仁³⁾의 시가詩歌인 <난파진가難波津歌, なにわづのらた>(〈梅花頌〉으로도 부름)가 일본 최초의 와카[和歌]이며 그 발생 과정을 비교 검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부기해 둘 것은, 앞으로 한일韓日 시가詩歌에 있어서 양국 학자 간의 본격적인 비교연구가 전개될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난파진難波津’은 지금의 오오사카[大阪] 항구의 고대의 지명地名이며, 서기 3C 경부터 백제인들이 개척했던 유서 깊은 터전이다.

일찍이 홍기삼洪起三 교수는 “‘안서岸曙’가 끝까지 자아를 고집하면서 고수한 7.5조와 한국의 전통적 리듬과의 비교, 또한 그 계승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라든가, 일본의 와카[和假]와의 비교, 또는 안서岸曙 당대에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을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⁴⁾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김윤식金允植 교수 이외 몇 분이, “소월素月の 시는 민요라고 하지만 주조음主調音은 7.5조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일본 시의 리듬과 깊은 관계가 있다”⁵⁾, 또는 조동일趙東一 교수 외 몇 분이, “일본 시가의 7.5조의 영향을 받은 김소월은 민요시인이 아니다”⁶⁾고 지적했는가 하면, 오세영吳世榮 교수는 “7·5조가 개화기 이후 일본 창가唱歌의 영향 아래서 크게 유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본 시가의 전통 음수율音數律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시가의 독특한 3음보격音步格이 이와 비슷한 일본 시가(和歌나 俳句)의 음수율에 상호작용을 일으켜, 다만 그 전대前代 보다 널리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⁷⁾고 밝힌 것 등도 앞으로 한일 시가의 비교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메시지로써 간주한다”⁸⁾

1)일본 센슈우大學 大學院 國文科 文學博士, 檀國大學校 大學院 日本詩文學 招聘教授, 韓國外大〈韓國詩作品論〉담당교수.

2)趙芝薰《韓國現代文學史》〈趙芝薰全集③〉(一志社,1973,p.211), 趙演鉉《韓國現代文學史》(成文閣,1969,p.118), 鄭漢漢《韓國現代文學史》(一志社,1971,p.161), 金海星《韓國現代詩文學概說》(乙酉文化社,1976,p.42), 金容稷《韓國近代詩史》(上卷,學研社,1991,p.137), 尹柄魯《韓國近現代文學史》(明文堂,1991,p.58)

3)왕인 박사는 왜나라 왕의 초청을 받고 응신천황應神天皇(생년미상~402) 16년에 백제로부터 《천자문千字文》과 《논어論語》를 가지고 일본 왕실에 건너가서 왕자의 스승이 되고 정무장관(文首)으로 활약했다(《日本書紀》〈應神條〉).

4)洪起三 〈岸曙의 선구적 위치와 문학〉(《文學思想》,1973.5,p.293)

5)金允植 〈植民地の 虛無主義와 詩와 選擇〉(《文學思想》,1973.5,p.58), 趙芝薰《半世紀歌謠文化史》〈趙芝薰全集⑥〉(一志社,pp.370~371), 金容稷《韓國近代詩史》(上卷,學研社,1991,p.364)

6)趙東一 〈民謠와 金素月詩〉(《曉星女大學報》,1970.4.1.第2面)

7) 吳世榮 《韓國浪漫主義研究》(一志社, 1990.12, p.46)

8) 本論의 제1장 <7·5조에 영향 받은 한국근대시>는 저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일본근대문학회 초청강연(1996.11.26)에서 밝힌 내용임.

2. 왕인이 창시한 일본 최초의 시가詩歌

일본 고대의 시가詩歌를 총칭해서 와카[和歌]로 일컫고 있다. 이 와카는 백제인 왕인 박사에 의해서 서기 405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발표되었다.⁹⁾

이는 서기 5세기 초, 한국인에 의해서, 일본이 자랑삼는 와카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왕인 박사는 5.7.5.7.7 음수율音數律을 갖춘 일본 와카의 창시자인 것이다.

박사 왕인의 와카는 ‘나니와츠노우타’[난파진가難波津歌] 또는 ‘바이카쇼우’[매화송梅花頌]로도 통칭되어 왔다.

<난파진가>는 처음에 다음과 같이 한자어로 쓰여졌다. 우리의 <향가>가 한자어를 음음, 훈훈 등 표기방식 즉 ‘향찰鄉札’로 기록했던 것처럼, 난파진가 역시 한자어를 차용借用해서 ‘민요우가나’[만엽가명萬葉假名]라고 칭하는 음, 훈의 표기식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難波津余 佐具哉此花 冬古毛梨

今波春邊 佐具哉此花¹⁰⁾

난파진에는 피는구나이꽃이 겨울잠자고
지금은봄이라고 피는구나이꽃이
(필자 번역)

이같이 왕인의 <매화송>은 음음과 훈훈으로 읽으면, 음수율은 5.7.5.7.7이 된다. 이 5.7.5.7.7의 음수율은 일본의 카나(假名,かな) 글자로 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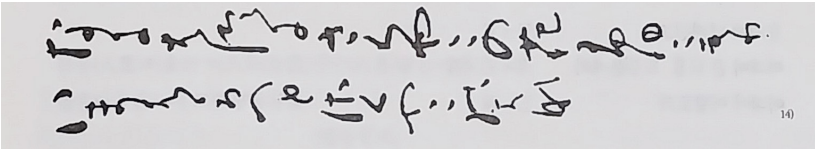
어서 쓰게 되며, 따라서 ‘와카’를 ‘미소히토모지’(三十一文字, みそひともじ)라고도 통칭한다.

일본 근대시가 7.5조 또는 5.7조로 되어 있거니와, 그와 같은 율조는 다름 아닌 박사 왕인의 와카 <난파진가>로부터 비로소 창시되었음을 우리는 우선 쉽게 살필 수 있다. 일본 7.5조의 발자취¹¹⁾에 대해서는 논고를 달리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앞에서 예시한 박사 왕인의 일본 최초의 와카 <난파진가>는 우리의 향찰 鄉札 또는 이두[吏讀]처럼, 일본말을 한자어를 차용借用하여 쓴, 이른바 ‘만요우가나’[萬葉假名]라는 표기법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간 뒤 왜나라 왕자에게 글을 가르치며 서기 405년에 <난파진가>를 지은 일은, 또한 왕인 박사가 최초로 왜나라에서 ‘만요우가나’를 창시해서 쓴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왕인 박사가 문자가 없던 왜땅으로 한자를 처음으로 가지고 건너가서 비로소 문자의 사용법을 가르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왕인이 처음으로 문맹국인 왜국에 건너가 왕자에게 글을 가르쳤다는 사실은 왕명에 의해 관찬된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서기》¹²⁾라는 고대 역사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부기하자면 <일본의 ‘만요우가나’[萬葉假名, まんよらがな]>는 한국 고대의 이두[吏讀]의 영향을 받았다¹³⁾고 일본의 학자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1882~1944)가 밝힌 바 있다.

왕인이 서기 405년에 쓴 <난파진가>(매화송)는 서기 905년에 키노 츠라유키[紀貫之] 등이, 카나[假名] 글자로 편찬한 《고금와카집》¹⁴⁾의 ‘카나서[假名序]’라는 서문에 실려 있다. 다음과 같은 것이다.



여기 예시한 <난파진가>는 시문학자며 가인歌人이었던 후지와라노 사타이에[藤原定家]가 고대의 원본《고금와카집》을 베껴 쓴 《다테본 [伊達本]》에 있는 <난파진가>이다. 왕인의 원문原文 한자어 대신 일본 글자 ‘히라가나[平假名]’로 썼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본 최초의 시가詩歌는, 문자가 없던 왜나라에 한자를 가지고 건너간 왕인 박사에 의해서, 최초로 지어진 <난파진가>(매화송)이다. 이것을 보면 음수율이 5.7.5.7.7의 와카[和歌]의 전형典型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음율은 일본 시가의 5.7조와 7.5조의 기본 율격을 이룬 것도 쉽게 살필 수 있다.

한국 근대시가 일본 시가詩歌 7.5조의 영향을 입었다고 하지만, 본래의 5.7, 7.5조 율격은 왕인이 창시한 와카 <난파진가>가 그 원천源泉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일본 시가 7.5조는 ‘카구라노우타’[神樂歌]가 작용했다는 게 저명 일본 학자들의 통론이다. 바로 이 ‘카구라노우타’도 일본 고대에 천황들이 한국신인 ‘한신韓神’을 제사지내던 축문祝文인 <제신가祭神歌>를 일컫는 것이다.¹⁶⁾

우리나라 고시가(古詩歌)에도 보면 7.5조의 율격이 가끔은 나타나고 있다. 그 전형적인 것이 백제가요 「정읍사」의 제1연 3. 4행과 제3연 2행 및 3. 4행에서 살필 수 있다. 그것을 3.4.5 음보격으로도 일컫는데, 7.5조인 것만은 틀림없다.

(音步律)

둘하 노피곰 도드샤

二 . 三 . 三

어긔야 머리곰 비춰오시라	三 . 三 . 五
어긔야 어강도리	三 . 四
아 다롱다리	五 (七.五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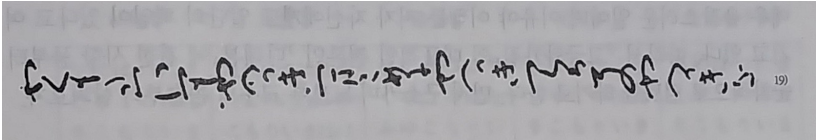
쏠져재 녀러신고요	三 . 五
어긔야 즌디를 드디올세라	三 . 三 . 五
어긔야 어강도리	三 . 四

어느이다 노코시라	四 . 四
어긔야 내가논디 점그를세라	三 . 四 . 五 (七.五調)
어긔야 어강도리	三 . 四
아 다롱다리	五 (七.五調)

이와 같이 <정읍사>에는 7.5조의 음수율音數律, 5음구(五音句), 7음구(七音句)들이 지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찍부터 고대 한국에 일본 와카(和歌)에서 볼 수 있는 5.7, 7.5 율조가 존재해 왔음을 고찰하게 된다. 여기 부기해 둘 것은 우리나라 국문학서의 <정읍사>의 가사는 ‘아 다롱다리’가 모두 5음(五音)으로 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어긔야 어강도리/ 아 다롱다리’의 7.5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살피게 된다. 그런데 고정옥 교수가 저술한 《조선민요연구》¹⁷⁾에는 ‘아으 다롱다리’로 표기되어 있다. 이 경우 ‘아으’는 고정옥 씨가 민요 채집 당시에 ‘아-’라는 긴 장음長音의 발음을 멋스럽게 ‘아으’로써 구송口誦한 사람으로부터 채집한 것에서 그와 같이 ‘아으’로 기술한 것으로 추찰한다. 그러나 ‘아으’ 역시 원原音은 ‘아’로써 간주하는 게 옳은 것으로 본다.¹⁸⁾

<정읍사>는 ‘고려가요설’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정읍사>를 한국 고시가로서 예시해 보았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간략히 부언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고금와카집》의 <카나서>[假名序]에서,

편자(紀貫之)는 신대神代, 즉 신화 시대에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라는 신神이 <야쿠모>[八雲]라는 와카를 지었다고 하는 엉뚱한 설을 내세웠다. <야쿠모>는 다음과 같다.



음수율에 맞춰서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팔운(八雲)이솟는 이즈모[出雲]팔중(八重)담장
 아내맛으려 팔중담장만드네 그팔중담장을
 (필자 번역)

물론, 이와 같은 와카를 인간이 아닌 하늘나라의 신이 신화시대에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후세에 조작造作된 것이라고, 일본의 저명한 국문학자 히사마쓰 센이치[久松潛一](1894~1976) 교수 등등이 논리정연하게 지적하고²⁰⁾ 있어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왜나라에 최초로 문자를 가지고 간 박사 왕인의 <난파진가>는 일본 시가의 창시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물론 일부 국수적인 일본 학자들이 <야쿠모>가 일본 시가의 효시라는 망발을 했던 일도 있다.

9) 洪潤基 <일본 和歌를 창시한 왕인 박사와 韓神歌>《現代文學》통권 506호 1997.2, pp.378~389)

10) 《古今集注》(일본 京都大學藏, 京都大學 國語國文資料叢書, 臨川書店, 1984.11.p.54)

11) 洪潤基 <日本詩歌と七五調音數律>(金徳と藤村の長編七五調定型四行詩), 《專修大學人文科學研究月報》(第166號, 1995.5, pp.35~38)

12) 《古事記》(서기 712년 편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관찬 역사책. 《日本書紀》(서기 720년 편찬). 일본에서 두 번째로 편찬된 관찬 역사책이다. 그러나 ‘한국사’와 ‘

중국사' 등과 비교할 때 연대 기술이 최소한 60년 또는 120년 내지 603년 이상 각기 빠른 거지된 기록으로서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史書이다.

13)小倉進平 《郷歌及び史讀の研究》(1929)

14)《古今和假集》(서기 905년 편찬)

15)《伊達本》藤原定家(1162~1241)가 12세기 말경에 原本《古今集》을 필사筆寫한 책이며 일본 국보(1938.7.4.지정)이다.

16)洪潤基 <일본 와카[和歌]를 창시한 왕인王仁 박사와 한신가韓神歌>(앞의 논문, pp.378~389)

17)高晶玉 《朝鮮民謠研究》(首善社, 1949.3. pp.50~51)

18)洪潤基 《일본문화사》(서문당, 1999, pp.221~222, pp.240~244)

19)《伊達本》

20)久松潛一, 《和歌史》(東京堂, 1948.3. pp.330~301), 折口信夫, 《折口信夫全集》(제11권)(中央公論社, 1973.3. p.75)

3. <난파진가>의 확고부동한 내용의 전본傳本들

왕인박사가 일본에서 최초로 5.7, 7.5조의 와카를 지었다는 사실은 《고금와카집》(905)의 필사本筆寫本으로서 권위 있는, 일본 국보國寶인 《다테본[伊達本]》(12세기 말경 필사) 등등이, 왕인의 시가詩歌 <난파진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 점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뒤늦은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한국문학사'에 고대 일본에서 활약한 왕인의 시가며, 고대 일본에 살던 한국인들의 '제신가祭神歌' 등등 각종 시가가 수록 평가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런 견지에서 왕인의 <난파진가>가 기록된 《고금와카집》의 고대 필사본 등 문헌文獻에 대한 사항들을 살피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문학사'에 왕인의 시가詩歌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유야 어떻든 저자 자신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고금와카집》의 대표적인 전본傳本人인 《다테본》에 관한 사항 등부터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한다.

먼저 ‘구소카미 노보루’ 교수의 논술부터 살펴보자.

“전본인 《다테본 고금와카집》은 ‘다테가’[伊達家]에 장구한 세월에 걸쳐 비장秘藏되어 왔던 귀중한 필사본으로서, 1938년 7월 4일에 국보(國寶)로 지정되었다”²¹⁾

또한 《순세이본[俊成本] 고금와카집》은 《다테본[伊達本]》과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전본傳本이다.

니시시타 게이이치[西下經一] 교수는 《고금와카집》의 전본傳本 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고금와카집》의 전본의 종류는 매우 많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들어본다면 교정本校訂本으로서의 ‘사다이에본’[定家本](필자注:앞에서 왕인 박사의 시를 인용한 필사본인 《다테본[伊達本]》) 등 그 친본親本으로서의 《순세이본[俊成本]》(필자注:역시 박사 왕인의 시를 인용한 필사본)이 있고, ‘신원어본’[新院御本]의 계통을 전하는 《가케이본[雅經本]》이 있으며, ‘오노황태후궁본’[小野皇太后宮本]의 계통을 전하는 《키요스케본[清輔本]》과, 헤이안조[平安朝](794~1192) 후기後期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간에이본[元永本]》 등이 있다. 이 다섯 책은 그 어느 것이나 완본完本이다.

그 밖에 단간斷簡(필자注:문서나 편지가 보관이 잘못되어 여기저기 흩어져 떨어져 나온 단편斷片으로 되어 버린 조각들)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교우세이필절’[行成筆切], ‘혼아미절’[本阿彌切] 등등이 있다. ‘사다이에본’[定家本]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테이오우본[貞應本]》, 《가로쿠본[嘉祿本]》 등이 있다. -중략- 이것들을 종種과 유類로 나누면 거의 20종 30류가 된다”²²⁾

현재까지 고금와카집의 계통론 연구에 있어서는 니시시다 케이이치[西下經一] 교수의 《고금집 전본의 연구》와 쿠소카미 노보루[久曾神昇] 교수의 《고금와카집성립론》과 《고금와카집총람》 등이 권위서로서 평가되고 있다.²³⁾

박사 왕인의 〈난파진가〉를 필사한 각 대표적 전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전본의 〈난파진가〉의 내용²⁴⁾

《私稿本》

なにはつにさ
くやこのはな
冬こもりいま
ははるへとさ
くやこのはな

といへるなるへし

《基俊本》

なにはつにさく
やこのはなふゆ
こもりいまはは
るへとさけやこ
のはな

といへるなるへし

《筋切本》

なにはつにさ

くやこのはな
ふゆこもりい
まはゝるへとさ
くやこのはな

といへるなるへし

《元永本》

なにはつにさ
くやこのはな
冬こもりいま
はゝるへとさく
やこのはな

と云るなるへし

《唐紙卷子本》

なにはつにさ
くやこのはな
冬こもりいま
は春へとさく
やこの花

といへるなるへ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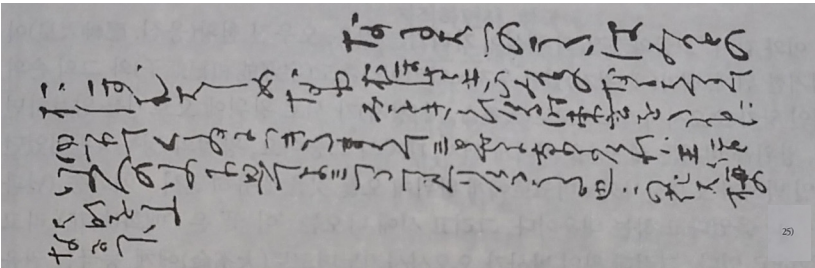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왕인 박사의 시가인 <난파진가>(매화송)는 5.7, 7.5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典型的인 단가短歌의 율격律格으로서의 5.7.5.7.7의 음보율音步律을 보이고 있다.

이 단가인 와카[和歌]에서 제시한 ‘이 꽃’은 ‘매화梅花’를 가리킨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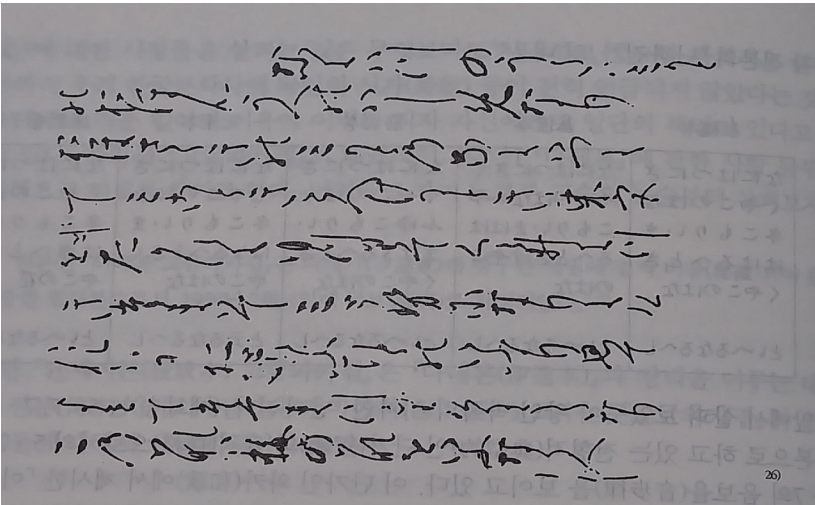
하는 게 원본에 해설로써 함께 표기되어 있다.

참고삼아 밝혀둔다면, 일본의 와카[和歌]란 ‘단가短歌’와 ‘장가長歌’ 그리고 ‘선두가旋頭歌’[세도우가] 등 ‘가체歌體의 시가詩歌’를 일컫는다. 전술前술한 《고금와카집》의 고대古代 필사본筆寫本人 국보 《다테본 [伊達本]》이며, 《순세이본[俊成本]》은 왕인 박사의 단가〈난파진가〉를(다음과 같이) 서로 똑같은 내용으로 각기 해설하고 있다. 물론 다른 모든 전본傳本들도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이다.

먼저 《다테본》을 살펴본다.²⁵⁾



이번에는 《순세이본》을 살펴본다.²⁶⁾



이상 쓴 사람의 붓글씨의 필체는 서로가 크게 다르나 두 내용은 똑같다. 즉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니와츠의 노래(난파진가)는 제帝의 어시御始이노라. 오오사사키노미코토[大雀命]가 나니와츠[난파진]에서 황자皇子로 불리우던 때, 동궁東宮을 서로 양보하고 위치에 오르지 않은 채 3년이 지나자, 왕인王人이라는 사람이 딱하게 여기면서 읊은 노래이노라. 이 꽃은 ‘매화梅花’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같이 《고금와카집》의 해설이 가리키는 것은, 오우진 천황, 應神天皇이 서거한 뒤에, 태자(제5왕자)였던 우지노와키이라츠코[字遲能和紀郎子]와 그의 손위 형인 왕자 오오사사키노미코토[大雀命](제4왕자)가 서로 왕위에 오르기를 양보하면서, 왕위를 비워둔 채 3년을 지내게 되자, 태자의 스승이요, 왕실의 정무장관이었던 왕인 박사가 ‘오오사사키노미코토’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권유하면서, 〈매화송〉(난파진가)를 읊었다고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시에 나오는 ‘이 꽃’은 ‘매화梅花’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왕인 박사가 오오사사키노미코토[大雀命]에게 등극을 권유한 것은, 황태자였던 우지노와키이라츠코[字遲能和紀郎子]가 요절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책인 《고사기古事記》에, ‘우지노와키이라츠코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까닭에 오오사사키노미코토가 천하를 다스리게 된다’²⁷⁾라는 기록이 보인다.

왕인 박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오오사사키노미코토’ 왕자를 새 임금으로 천거했던 것이다. 그 천거 방법으로써 왕인 박사 스스로가 시를 지은 것이 〈난파진가〉(매화송)임은 부연할 것도 없다.

21)久曾神昇 解題《伊達本.古今和歌集.藤原定家筆》(風間書店,1961.10,p.7)

22)西下經一《古今集の傳本研究》(明治書院,1954.11,p.1)

- 23) 奥村恒哉 《古今集.後撰集の題問題》(風間書店,1971.2.p.26)
 24) 久曾神昇 解題 《伊達本.古今和歌集.藤原定家筆》(風間書店,1988.12.p.34)
 25) 《伊達本》
 26) 《俊成本》
 27) 《古事記》日本古典文學大系1,倉野憲司 外(注,岩波書店,1958.6.p.255)

4. 고대 한국인에 의한 왜나라 정복론

고대 한국인들이 왜나라로 건너가, 그 터전을 정복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토우쿄우 대학의 에가미 나미오[江上被夫](1906~2002) 교수는 화제의 논저論著인 《기마민족국가(騎馬民族國歌)(1967)에서 “고대 한국인 즉, 기마민족인 통구스계의 부여족扶餘族이 만주 땅에서 차츰 한반도韓半島로 남하南下하여 ‘삼국시대’를 이루게 된 것이고, 한반도 남부에 내려가서 살던 그 일부의 기마민족이, 고대 일본으로 건너간 ‘스진 천황’(송신,崇神天皇, BC9 7~BC 30 재위, 《日本書記》. ‘에가미 나미오’ 교수는 스진 천황을 서기 4세기 초엽의 인물人物로 보고 있다)이며, 그가 선주민들을 정복하고, ‘왜한연합왕국倭韓聯合王國’을 세웠는데, 이때 왕인王人 등 대호족이 ‘야마토연합정권[大和聯合政權]’²⁸⁾을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에가미 나미오 교수의 ‘기마민족 정복왕조설’을 거듭 밀받침하는 것이, 토우쿄우 대학 이노우에 미쓰사다[井上光貞](1917~1983) 교수이기도 하다. “몽고인은 색목인色目人을, 만주국은 몽고인을 중용重用했던 것처럼, 천황씨天皇氏 자신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많은 귀화인들을 조직할 수 있었다”²⁹⁾고 이노우에 교수는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천황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한반도에서 왜국으로 도래한 사람들을 많이 중용重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노우에 교수는 “문화가 발달한 백제 땅으로부터 수많은 관리며 기술자들을 초대해 온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람들이 대륙이며 한국의 제도制度를 모방해서 만든 ‘후히토’(史, 필자 注: 고등행정 관리)며 ‘토모베’(品部, 필자 注: 행정부서)의 ‘토모노미야츠코’(반조伴造, 필자 注: 황실皇室 소유의 부부를 세습적으로 관리하고 통솔한 수장首長, 귀족貴族)가 되어 문화며 생산의 지도를 담당했다”³⁰⁾고 한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첨가해 두고 싶은 것은 저명한 작가며 역사가였던 마쓰모토 세이초우[松本清張](1909~1988) 씨가 고대 일본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 분쟁 시대에, 고대 한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했다고 하는 것이다.

“7세기의 ‘아스카[飛鳥]시대’라고 하는 것은, ‘야마토조정[大和朝廷]’이 성립되려고 하던 시기다. 이 시기는 나중에 오게 된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한국인들이 합류되었기에, 문화가 강대強大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과정은 한국문화를 흡수吸收한 것이 아니라, 본래는 서로가 똑같은 민족이었기에, 합류가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극언極言하자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나라이다. 행幸인지 불행인지 ‘대마해협對馬海峽’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동란動亂(필자 注: 신라, 고구려, 백제의 분쟁 시기)이 일고 있던 때에 일본은 독립을 해서 보다 ‘일본적日本的’으로 되어 갔다. 일본적이라는 것은, 선주민족先住民族(필자 注: 아득한 옛날부터 일본에 먼저 와서 살던 종족)의 풍속을 살리면서 여기서 융합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과 같은 것이다”³¹⁾

이와 같은 일본고대사日本古代史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지적은 곧 고대 한국인들이 한때 일본을 정복했거나, 최소한 식민지 체제로서 일본을 지배한 사실을 입증한다.

왕인 박사가 왜국에 건너간 것은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346~375) 때이므로 4세기 후반이다. 일본사日本史에서의 오우진 천황[응신, 應神天皇](270~310) 시대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역사에서의 오우진 천황의 실제의 집권 시기는 근초고왕과 비슷한 연대이므로, 60년의 연수를 아래로 내려서 따져야 한다. 그 점은 일본 사학계의 통설이기도 하다.

박사 왕인이 닌토쿠 왕조[인덕, 仁德王朝] 때, 왕도였던 오오사카[대판大阪, 難波津] 핵심지역에, 자신의 거대한 점거지占據地를 갖고 대호족으로서 또한 왕실의 정무장관으로 활약했거니와³²⁾ 이를 다시금 입증해 주는 것이 미즈노 유우[水野 祐](1918~2000) 교수의 학설이기도 하다. 즉 “우리나라(필자 注: 日本)와 한반도와의 교섭에 있어서, 특히 백제와의 관계사, 오우진 천황[응신, 應神天皇]과 닌토쿠 천황[仁德天皇](필자 注: 오우진 천황의 제4왕자) 시대 이후에 관계사료關係史料가 두드러지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오우진, 닌토쿠 천황의 인덕왕조仁德王朝는 ‘외래민족적外來民族的’ 세력의 침입에 기인해서 발생한 ‘정복왕조征服王朝’로서, 대륙적인 성격을 갖는 새로운 왕조라고 하는데서부터, 대륙의 사정에도 상세하고, 따라서 그 정세에는 민감하며, 특히 그 지배층이 ‘백제국가百濟國家’와 ‘동일민족계통同一民族系統’(백제왕은 부여족)에 속하며, 예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³³⁾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왕인이 천거한 닌토쿠 천황은 한국으로부터 건너온 백제인 도래인이며,³³⁾ 그러기에 왕인의 시가詩歌 <난파진가>(매화송)의 성립도 완전무결한 역사적 배경마저 갖는 것이다. <난파진가>(매화송)의 집필 시기를 서기 313년으로 필자가 《현대문학》(1997.2)에 발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된 《일본서기》의 닌토쿠 천황의 등극년(서기 313)을 따라 준 것이었음을 굳이 여기에 밝혀둔다. 따라서 사실상의 집필 연도는 서기 405년으로 보는 게, ‘한국사’ 등과 한일 역사 관계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타당한 것임을 지적해 둔다.

또한 <난파진가>(매화송)에 관해 부기해 둘 사항이 있다. 일본의 시가詩歌 문화文化가 한창 꽃피던 헤이안[平安](794~1185) 시대에는

역대 천황들도 ‘연초 궁중 시낭송회’[歌會始]에서 왕인의 〈난파진가〉를 낭송한다. 스스로 지은 자작시 ‘와카’를 낭송했으며, 와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난파진가〉는 ‘아버지의 노래’[父歌]로서 표본을 삼았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서예의 붓글씨[手翫]의 표본으로도 역시 〈난파진가〉를 습득했다.

18세기 일본에서도 그 당시 저명한 시문학자였던 에무라 훗카이[江村北海](1713~1788)가 그의 목판본木板本(1771) 저서 《일본시사日本詩史》의 모두(卷之一)에서 백제의 박사 왕인王仁의 일본 최초의 와카[和歌]인 〈매화송梅花頌〉 즉 〈난파진가難波津歌津〉와, 왕인에 관해 다음처럼 밝히고 있다.

“역사를 살펴볼 때, 오우진[應神] 천황(필자 注: 4~5C) 15년에 백제국百濟國의 박사 아직기[博士阿直幾]가 내조來朝하였고, 《주역》, 《논어》, 《효경》 등의 책을 바쳤다. 왕은 기뻐하며 ‘아직기’로 하여금 ‘경經’을 왕자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학經學은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뒷날 아직기는 왕인王仁을 추천했다. 왕은 즉시 백제왕에게 편지하여 왕인을 부르게 되었다. 왕인이 도착했다. 아직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왕자들을 가르쳤다. 왕이 붕어하고 닌토쿠[仁德] 천황이 즉위(필자 注: 서기 405년)하여 나니와(필자 注: 難波, 현재의 오오사카)에 천도했다.

왕인은 〈매화송梅花頌〉을 지어 바쳤다. 이른바 31언(三十一言, 필자 注: 글자가 31자라는 것이고, 흔히 ‘미소히토모지’라 하여 ‘三十一文字’로써 표기해 왔음)의 ‘와카[和歌]’라는 것이로다”

이와 같은 것으로도 ‘왕인이 일본 최초의 와카를 5.7, 7.5조로 지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근대의 대표적인 언어학자 ‘카나자와 쇼우사브로우’[金澤庄三郎](1872~1967) 박사는 일찍이 1902년에 《日韓兩國語同系論》(일한양국어동계론)을 써서 이름났거니와 그는 당시 일본의 대표적 국

어사전 《廣辭林》(1925,p.1455)에서, ‘왕인 박사의 〈난파진가〉(매화송)를 읽고, 이 노래가 서예를 배우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익혀야 할 와카라는 것’ 등을 상세히 밝혔다.

그러나 현대 일본의 국어사전에는 ‘나니와츠’[難波津] 항목에서 왕인의 시와 그에 얽힌 내용을 언급 내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필자(홍윤기)는 30여년 전에 고서점에서 왕인의 〈난파진가〉(매화송)를 찾아낸 뒤로, 왕인을 찾아 오랜 세월 일본 땅을 헤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동안 찾아낸 왕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일본 ‘고대 시편’ 등도 앞으로 논증 발표할 것을 여기 적어둔다.

28)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中央公論社,1982.1,pp.194~202)

29)井上光貞 《日本國家の起源》(岩波書店,1960.4,pp.189~190)

30)井上光貞 《日本國家の起源》(岩波書店,1960.4,p.214)

31)松本清張 〈東京新聞〉(朝刊,1972.4.1)

32)平野邦雄 《日本歴史》(岩波書店,1962.6,p.92)

33)水野 祐 《日本國家の國家形成》(講談社,1978.4,p.199)

34)홍윤기 《일본천황은 한국인이다》(효형출판,2000.3,pp.15~95)

본고는 《現代文學》(1997. 2月號)에 발표했던 필자의 연구론 〈일본 와카[和歌]를 창시한 왕인王仁 박사와 한신가韓神歌〉에 뒤이은 새로운 논고論考임을 밝혀둔다.

신시100년 기념출판

한국현대詩 해설



진달내씨

나보기가
가실씨에는
말면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峯邊에樂山
진달내씨
가들려다 가실씨에 썩리우리다
가시는겨용거름
노힌그릇술
상분히즈러참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가실씨에는
가실씨가
여겨쉬
흔들흔니우리다

민누리미디어 (1992년) 도서

표현상의 특징

김소월 시의 율조는 7-5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인 조지훈(趙芝薰) 등은 7-5조를 일본율조(日本律調)로 주장했으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7-5조의 바탕은 한국 고대 가요(歌謠) "정음시(井田詩)"에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박제(白濟)의 왕인(王仁)과 서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서기 405년에 지은 일본 와카(和歌)의 음시인(音詩)과 가(歌) (能波津歌・梅花歌)에 7-5조를 나타냈다는 서의(7-5조 시가연구론, 인(能波津歌・梅花歌)의 7-5조는 한국의 율조(律調)이다-홍윤기)를 참조 요망함), 세2인의 "정변에 익산 친입레꽃"만을 제외하고는 구어체(口語體)의 장수(長壽)를 활용한 7-5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고대 한국 민요조의 리듬감을 뛰어나게 살리고 있다. 일거위, "조리" 등의 도속적 언어와 활용은 한국인에게 낯다른 친근감을 갖게 한다. 또한 유성(有聲)을 적절히 배열한 ~리우리다를 반복하여 각운(脚韻)의 효과를 잘 살려 정감(情感)을 문우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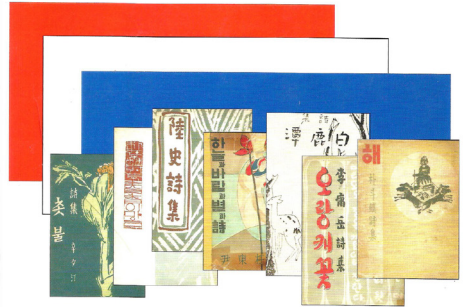


9 788979 692242 ISBN 89-7989-224-2

신시100년 기념출판

한국현대詩 해설

● 이해와 감상



한국현대시문학연구소장
문학박사 홍윤기 지음



▲《한국 현대詩 해설》(한누리미디어.2003)



문학박사 홍윤기 洪潤基

*1959.4. 《현대문학》(박두진 추천, 〈석류사초〉(1958.8), 〈비둘기〉(1959.2), 〈신령지의 노래〉(1959.4), 3회 추천 완료)

*1959.1 〈해바라기〉(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심사위원-김광섭, 박목월, 김용호, 서정주 공동심사)

*제26회 월탄문학상 수상, 제9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상 수상, 제24회 한국문학상 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일본 센슈우대학 대학원 국문과 문학박사(〈韓日詩歌의 音韻 비교 연구〉), 일본 센슈우대학 겸임교원(한국어문학 담당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교수, 단국대학교(일본 센슈우대 자매대학) 대학원 초빙교수,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자문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시작품론》 담당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석좌교수

*저서: 《한국현대시 이해와 감상》(한림출판사.1987), 《한국명시》(예림당.1989), 《시창작법》(한림출판사.1992), 《한국 현대시 해설》(한누리미디어.2003), 제1시집 《내가 처음 너에게 던진 것은》(거목.1986), 제2시집 《수수한 꽃이여》(문학세계사.1989), 제3시집 《시인의 편지》(명문당.1991), 《일본문화사》(서문당.1999), 《일본문화백과》(서문당.2000), 《일본속의 한국문화유적을 찾아서》(서문당.2003), 《일본천황은 한국인이다》(효형출판.2000), 《일본의 역사 왜곡》(학민사.2001)

*논문: 〈韓國近代詩とその詩史的背景考〉(일본 센슈우대 《인문과학연보》(1993.3), 〈75조 詩歌에 대한 考察〉(한국외대 대학원, 《일본근대문학》 회지(1996.3), 〈韓日詩歌의 七五調論〉(단국대, 《일어일문학》 회지(1997.5), 〈일본 와카[和歌] 창시한 왕인박사와 한신가韓神歌〉(《現代文學》(1997.2월호), 〈일본 천황가 연구〉(《月刊朝鮮》(1998.1~7월호 연재), 〈한일동족설 신연구〉(《新東亞》 1999.10~12월호 연재), 〈神樂歌의 韓神と 園神〉(檀國日本研究學會誌, 2000.10), 〈신라 神道연구〉(《新東亞》, 2002.2월호), 〈일본 천황가의 한국신 제사와 황국사관 고찰〉(《日本學研究》(단국대일본연구소, 2002.10)

1. 문학이 안겨준 달나라의 꿈



권천학

《현대문학》으로 등단, 진단시 동인으로 활동. 《여월》에 단편 〈모래성〉, 드라마 〈꿈
임없이 도는 풍차〉, 〈저녁노을 붉은 꽃〉, 〈끈〉이 KBS, TBS에 당선. 한국전자문학
도서관 웹진 《블루노트》(2000~2006)를 발행, 2008년 캐나다로 이주, 2010년 단편
〈오이소박이〉로 '경희해외동포문학상' 대상 수상, 2015년 국제작가네트워크(WIN)
의 Distinguished Poet Award를 수상,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며 국제PEN클
럽, 한국시협, 캐나다문협, 세계시조시인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 저서: 《그물에 갇힌
은빛 물고기》외 시집 12권, 영한시집 《 $2H_2 + O_2 = 2H_2O$ 》, 일어시집 《空っぽの都市の
胸に電話をかける》(빈도시의 가슴에 전화를 걸다) 등이 있다.



우주를 향한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은 인간의 본능이다.
아르테미스 2호(Artemis II)를 실은 우주선 ‘오리온 호’의 발사 소식을 접하자마자 가슴이 또다시 용솟음쳤다.
나의 종교는 과학이라고 말할 만큼 과학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용솟음치는 기분과는 달리 또 다른 생각들이 새끼를 치고 있었다.
그중의 하나는 -완전히 사라져가는- 달나라의 동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였다. 그 염려는 오래전부터 달을 가슴에 품어온 인간적인 동화를, 가슴에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끌었다. 이 생각은 과학이 발전하여 달라지는 상황에 대하여 경외감을 갖추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

우리나라 전설 속에, 달나라에는 선녀 항아姮娥와 계수나무 아래 떡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다. 또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가 있다.
호랑이에게 쫓겨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늘에 올린 남매의 기도 응답이 바로 ‘해’와 ‘달’이었다. 오빠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되었다. 해가 된 오빠가 낮 동안 떠올라서 그리운 여동생을 기다리지만, 해가 질 무렵 여동생이 된 달이 떠오른다.
오누이의 만남과 헤어짐은, 우리의 낮과 밤을 지키는 조화와 균형이다.

그리스 신화를 통한 서양 전설은 사이사이에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이 끼어있고, 갈라져 가며 갖가지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내지만, 굵은 줄거리만 이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르테미스(Artemis)’는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Zeus)와 레토(Leto)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다. 오빠 이름은 ‘아폴로’(Apollo, 그리스어 표기로는 ‘아폴론’Apollon)이고, 여동생의 이름은 아르테미스이다.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인 동시에 사냥의 수호신, 처녀의 상징이기도 하다.



▲ '언스플래쉬' 제공

쌍둥이 오빠인 아폴론은 태양신이 되어 빛과 힘의 상징인 낮을 관장하고, 여동생인 아르테미스는 온화함과 자연의 상징으로 밤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둘은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우리의 '남매 전설'과 비슷한 구조이다.

낮과 밤, 해와 달, 남과 여, 양과 음의 분류로 보면 동양과 서양의 신화와 전설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신화, 전설 또는 역사의 진행을 공부할 때, 동서양을 막론해서 인간의 상상력이나 호기심은 비슷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인간은 동서양의 차이가 없다는 생각으로 귀결되면서, 긍정적으로 끄덕이게 했다. 따라서 오늘의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분열, 차별, 편견들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달나라에 대한 동경憧憬,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빚어낸 동화童話와 전설은 문학文學의 영역이고, 자꾸만 파헤쳐지는 달의 비밀을 가슴에 품어두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해야 한다.

달나라에 탐사선을 날려 보낸 것이 54년 전의 일이지만, 달나라에 대한 우리의 동화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온 이야기다.

지금 달을 향해 하늘을 날아가는 우주탐사선의 이야기는 과학의 영역이다. 그러기 위해서 54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 본다.

달나라에 첫발을 내딛던 탐사선의 이름을 ‘아폴로’라고 명명한 것, 그리고 이어서 ‘아르테미스’로 명명한 나사(NASA)의 의도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한국의 설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를 한 번쯤 새겨둬도 좋지 않은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어머니를 헐박하던 호랑이는 떡을 받아먹고도 어머니를 잡아먹은 후 어머니로 변장하여 집으로 찾아가 아이들에게도 술수를 쓴다.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챈 남매는 뒷문으로 도망치고 호랑이가 그들을 뒤쫓는다. 다급해진 남매는 수수밭에 이르러 수숫대를 타고 하늘로 오르려 하자 간절히 기도한다.

“하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려면 굶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굶은 동아줄이 내려온다. 남매는 그 줄을 타고 가까스로 하늘에 오른다.

뒤쫓아온 호랑이가 남매의 기도를 흉내 낸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다. 그 동아줄을 타고 하늘에 오르다가 줄이 끊어져 수수밭으로 떨어지고 만다.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이다.

하늘에 오른 남매, 오빠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밤과 낮을 지켜준다.

어린 시절, 가끔 핏빛으로 물든 수숫대를 가리켜, 그때 수수밭에 떨어져 죽은 호랑이의 피라고 들려준 어른들의 말을 믿었었다.

누구나 다 아는 동화童話! 그러나 가슴에 심어진 이야기, 이것이 곧 ‘문학의 힘’이라는 것까지 생각하는 독자들이 늘어나면 좋겠다.

2. 과학이 전해온 달나라 통신

- 아르테미스 2호

한밤중, 창문을 통하여 동실 떠 있는 달을 보았다. 유난히도 짝 찬 보름달이었다. 지금 잘하고 있지 아르테미스?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내가 달에게 말을 걸었는지, 달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는지, 나의 혼잣말은 상상으로 이어졌다.

아르테미스의 은마차가 막 도착했다. 활과 화살을 메고 있었다. 춤판이 벌어졌다. 님프들과 함께 숲을 누비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슴과 곰, 개 그리고 사이프러스와 월계수가 우거진 그늘 아래에서 었다. 달나라의 춤판과는 달리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지구는 출렁이고 있다. 날마다 가스 값이 출렁이고, 증권시장이 출렁이고, 정치가 출렁이고, 경제가 출렁이고...

지금쯤 달의 뒷면 어디쯤을 날고 있을 오리온(Orion)호, 아르테미스 2호의 행로를 눈으로 더듬으며, 오늘은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의 과학영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달을 향한 인류의 꿈은 1969년이 첫 시작이었다.

그해 7월 20일, 유인有人 우주선 ‘이글’(Eagle)호는 아폴로 11호(Apollo 11)를 싣고 달을 향하여 날았다.

달에 도착,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과 버즈 올드린(Buzz Aldrin)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디뎠다.

3년 후인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는 사령관인 유진 서넨(Eugene

Cernan)과 뒤이어 조종사인 해리슨 슈미트(Harrison Schmitt)가 달을 밟았다. 달은 그때의 발자국들을 간직하고 있을까?
그로부터 54년이 지난 이번의 탐사 여행이다.

이번의 아르테미스 2호는 당초 2월 발사로 예정되었다가 기술적 문제와 날씨 관계로 미뤄진 후, 4월 1일에 발사되었다.



▲지난 6일, 아르테미스 2호 선내에서 우주비행사들이 찍은 풍경. 달 지평선으로 지구가 지고 있다.(NASA)

이번엔 달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달의 뒷면(이면裏面, far side) 즉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뒤쪽을 근접 비행(fly by)으로 돌아보는 10일 정도의 여정旅程이다.

목적은 달 주변에 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얼음으로 덮여있다고 알려져 온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만약 얼음이 있다면 녹여서 물을 만들고 그 물을 수소로 분해해서 화성까지 가는 연료를 만드는 일, 즉 달을 우주의 주유소로 만들겠다는 큰 목표를 갖고 있다.

아르테미스 2호에 탑승한 우주인은 4명이다.

사령관인 미국인 리드 와이즈먼(Reid Wiseman), 흑인 우주인 빅터 글로버(Victor Glover), 캐나다 우주국(CSA) 소속인 제레미 한센(Jeremy Hansen), 그리고 여자 우주인 크리스티나 코크(Christina Koch)이다.

간혹 최초의 흑인 우주인, 또는 여성 우주인, 그리고 캐나다 우주인이라는 점을 화제로 삼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인 나,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런 것보다는 더 눈여겨 봄직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바로 한국의 순수기술로 만든 라드큐브(K-Rad Cube)가 업무수행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라드큐브는 ‘우주 방사선 측정 큐브 셋(우주 방사선 측정 큐브 위성)’으로, 방사선 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밴 에일런대(Van Allen Belts)을 가로지르며 직접 방사선량을 측정, 수집한다.

그곳에서 사람이 생존하려면 어떤 장비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수집한 데이터를 한국통신으로 전송한다. 그 말은 바 업무를 마치면, 지구로 복귀하지 못하고 우주의 먼지로 사라진다.

감정적으로 매우 애석하지만, 과학이고 기계이지... 하고, 의식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한다. 다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인류 공동목표에 실질적인 기술 파트너로 한국이 참여했다는 점은 한국 우주과학기술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며 애석한 마음을 거꾸 누른다.

달의 표면온도는 위치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0°C 도라고 알려져 있다. 햇빛을 받는 곳은 100°C 이상이고, 그늘이나 밤이면 $-170^{\circ}\text{C} \sim -190^{\circ}\text{C}$ 라고 한다. 그토록 온도 차가 크고 낮은 것은 대기가 거의 없고, 열을 분산시키거나 유지할 공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

나는 지금 아르테미스 2호(Artemis II)가 보내온 첫 번째 지구 사진을 응시한다.

칼 세이건(Carl Sagan), 그도 그렇게 말을 했었지. 그의 통찰에 새삼 경의를 표한다.

오래 전에 쓴 나의 《우주시편》들이 떠 오른다.

〈까불지 마라〉, 〈또 하나의 우주〉, 〈그대 나의 명왕성〉... 나의 가슴도 두근거렸었다.

발사 이후 겨우 하루가 지났지만, 장대한 시간의 역사가 흘러간 기분이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달의 이면裏面, 그곳을 지나고 있을 아르테미스 2호, 거기에 탑재된 한국산韓國產 ‘K-라드큐브’,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업무수행을 완수하기를 거듭 기원한다.

3. 그녀 페니, Peny!

그녀를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가끔 들어왔다. 뉴스를 통해서다. 하이파크 근처 어디에 그녀가 나타났다가, 또 어느 주택가에서 그녀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일 년에 한두 번? 그녀의 소문은 심심찮게 떠돌았고, 그때마다 늘 심상찮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럴 때마다 살짝 궁금증을 갖기는 했지만, 그냥저냥 잊어버리곤 했다.

지난달 어느 날, 예년보다 큰 폭설이 내린 후였다. 우리 집은 물론 이웃의 앞뒤 뜰에 엄청 많은 눈이 쌓였고, 토론토 시내의 길과 주택가

의 지붕이 눈에 덮여, 명화名畵 속의 한 장면 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양편에 눈이 쌓여 조붓해진 도심의 길들을 지나 피지오테라비(Physiotherapy)를 마치고 돌아왔다. 2층에 있는 나의 방에서 굽똥 동작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늘 하던 대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커다란 통유리창을 통하여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는 일은 나에게 소소하지만 즐거운 습관이다. 그날도 그랬다.

무심히 내려다본 집 앞의 뜰과 이어진 길, 나뭇가지들 사이로 어롱어롱, 뭉가의 움직이는 동작이 감지되었다. 왼쪽 방향이었다. 언제나 처럼 누군가 걷고 있으려니, 생각하며 잠시 바라보았다. 나무 사이를 벗어나 나의 시야 중심으로 드러낸 모습은 네발 달린 짐승이었다. 개였다. 그것 역시 자주 있는 일, 새로운 광경은 아니었다. 허스키와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 개는 걸음을 재촉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와 동반하지도 않고, 혼자, 느긋했다. 지나온 뒤쪽(왼쪽)과 가고 있는 앞쪽(오른쪽)을 번갈아 가며 보며, 길 양편으로 걷다가 길 중앙으로 가기도 하면서 유유했다. 곧바로 앞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 앞뒤 좌우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듯 살피며 느린 걸음으로 걷는 품이 느긋했다. 그 행동거지가 영락없이 함께 산책 나온 주인을 잃고 찾거나, 친구를 찾는 것 같기도 했다. 몸집은 회갈색이었고 중 톳 개 크기였는데, 다이어트 중인 것처럼 야위어 보이는 몸매였다. 꼬리가 뭉툭했다. 내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나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몸을 기울였다.

개를 끌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일은 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주인 없이 혼자? 좌우 주변을 살펴 보았지만 아무도 뒤따라오거나 동행한 사람이 없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느린 행보로 우리 집 앞, 시선의 중앙을 막 지날 무렵이었다. 어슬렁거리며 건너편 갓길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듯하던 바로 그 순간, 번개

처럼 움직였다. 대각선, 집 앞의 뜰에 쌓인 눈밭으로 뛰어드는가 싶더니 사라졌다. 그 집 뜰 가운데 몸통으로 서 있는 나무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검은 선線 한줄기가 동시에 포착되었다가 사라졌다. 이내 조용해졌다.



▲‘언스플래쉬’ 제공

개의 행방을 찾으려고 허리를 약간 굽혀가며 창가로 다가서서 시선을 모았다. 10초도 채 안 될 만큼 짧은 정적이 지나갔다. 그 나무의 검은 밑둥 주변에서 잠시 눈보라가 이는 듯했다. 초점을 모은 나의 시선 안에 밑둥의 뒤편에서 검은 걸레 조각을 입에 물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이 나타났다. 청설모였다.

나의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잠깐 주변을 살피는 듯하더니, 밑둥 아래 눈밭에서 자리 잡고 앉아 걸레 조각처럼 너털너털해진 목숨을 발기기 시작했다. 굵주린 배를 채우는 피의 파티였다.

한 목숨이 사라지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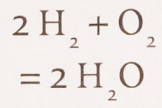
그때, 왼쪽에서 키 큰 남자가 어린 개를 끌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역시 애견과 함께 산책하는 낮이 익은 광경이었다. 유유자적하게 다가오던 그 모습이 나뭇가지 사이로 어롱어롱 비치는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갔다. 나무 아래에 오줌도 누이고 똥도 누이면서 느긋했다. 순간 나는 그 애완견이 위태롭다는 생각이 스쳤다. 마음이 다급해졌다. 통유리인 유리창이라 열 수도 없었다. 옆의 조봇한 방충망 창이 있지만 그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말하면, 지금 피의 파티에 열중하고 있는 짐승도 알아들을 것 같았다.

통유리 문을 두드렸다. 전혀 올려다볼 기색이 없었다. 통통통통... 여기요! 여기요! 소리를 죽여 가며 몇 차례 두드리자 낄새를 느낀 그 남자가 올려다보았다. 나는 손가락 언어와 시늉을 적극적으로 보냈다. 그 남자가 나의 손가락 지시를 따라 파티 현장을 바라보더니, 얼른 개의 목줄을 당겨 품에 안고 우리 집으로 피신해 들어왔다.

그 남자는 그 짐승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개가 아니라 ‘카이오티’(코요테, coyote)라고 했다. 몽푽하게 잘린 꼬리가 특색이고 가끔 우리 마을에 나타나서 주택가를 어슬렁거리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페니’(Peny)라고 부른다고 했다.

봄이나 가을철에 가끔 주택가로 내려오는데, 특히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이 되면 더 자주 눈에 띈다고 했다.

나는 그날 그렇게 그녀를 처음 만났다.



Poems by
Cheonhak Kwon

Translated by Hana Kim

TAMAL VISTA PUBLICATIONS

봄비

印黙 김 형 식

곡우穀雨 댁이

밭둑에 앉아

젖을 물리고 있다

보채는

봄순이

파랗게 웅얼이한다.

봄의 여신은 만물의 어머니이며, 우리 인간들은 봄의 여신인 곡우穀雨 댁의 젖을 먹고 자란다.

‘곡우 댁’의 젖가슴은 우주만큼 크고, 그 시원한 젖줄기는 모든 얼어붙은 마음을 다 녹인다.

적의와 분노와 살기와 증오와 질투 등을 다 녹이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믿음과 우정 등을 가르쳐 준다.

곡우댁의 젖가슴에서 쏟아지는 봄비는 모든 샘물과 강물의 기원이 되고, 우리는 모두가 다같이 이 봄비 앞에서 어린 아기가 된다.

‘봄순이/ 파랗게 웅알이한다’

봄비 같은 정치, 봄비 같은 경제, 봄비 같은 자유, 봄비 같은 지혜로 사는 전 인류의 낙원은 이렇게 탄생한다.

봄의 여신은 곡우덥이고, 곡우덥은 김형식 시인의 창작품이다. ‘곡우穀雨덥이/ 밭둑에 앉아/ 젖을 물리고 있다’라는 아주 멋지고 탁월한 시구가 만물의 부활을 뜻하는 봄비를 쏟아지게 하고, 수많은 봄순이들이 ‘봄비 축제’를 열게하고 있는 것이다.

김형식 시인은 대자연의 열광적인 찬양자이자 ‘봄비 축제의 설계자’다.〈반경환 명시 감상〉에서 인용(시인, 평론가, 철학자, 사상가)



印黙 김형식

시인, 문학평론가, 전남 고흥 출생, 전남대 농경제학과, 무불선학대 대학원 졸업, 성철스님 몽중상좌 해인총림 수좌 원용대선사로부터 범명 '인묵'을 받은 재가불자. '詩聖 한하운' 명명命名의 발제자, 詩聖 한하운문학회 《보리피리》 편집주간, 고흥문학회 초대회장, 詩서울 자문위원장, 월간문학상 선정위원장, 한국문인협회 제도개선위원,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매한 율봉길사업회 지도위원, 한강문학회 편집고문, 대지문학 심사위원, 불야문부회장, 송파문협 시분과 위원장, 한글문학 자문위원, 한국청소년 문학대상, 제2회 시서울 문학대상, 창작문학대상, 대지문학대상 수상, 1969년 현대문학 창작입문과정 이수, 2015년 불교문학에 詩〈그림자 등지〉외 4편으로 등단, 2020년 《한강문학》에 〈詩聖, 한하운의 어머니에 대한 소고〉로 문학평론가 등단, 시집 《그림자 하늘을 품다》, 《오계의 대화》, 《광화문 숲대》, 《글, 그 씨앗의 노래》, 《인두금人頭琴의 소리》, 《성탄절에 108배》, 《질문》, 《無我的 강》 외, 이메일: hyeongsik2606@daum.net

그대 자유로 가라

-유명 인사들의 자살을 보고

허 흥 구

죽은 생명도
싱싱하게 살아온다는 이 봄날
저만 혼자 떠나야 하는
그 아픈 사연이 무엇인가

목숨을 함부로 한 짓값은
내 따질 일이 아니냐
부디 이승에서 그대를 읊아맨
그 끄나풀을 풀고 가시라

봄날의 이 따사로운 햇살처럼 가시라.

그때는

어둠 걷히고
묶인 사슬 풀리는 날
나 바람으로 가리라
산과 들과 바다로

설혹 그때 그대가
이승의 밖에 있다 해도
기어이 그대 곁으로 가리라
거침없이 거침이 없이

내 그렇게 하여
또 한 생을 시작하리라.

그대. 1

손을 아니 잡아도
팔이 저러옵니다.

그대. 2

차마 꺾지 못하는
내 맘속에
마지막 꽃 한 송이.

그대. 3

밥이다
에너지다

끝이 있는 길을
끝없이 살게 하는.

그대. 4

다시 시작할 것이다
똑바로 걸어갈 것이다
땅에서 하늘까지

눈 감고 손 놓아도
같은 걸음으로 갈 것이다
이승에서 저승까지.

거울 앞에 서서

치장하고 모양을 내다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저기 저 거울 속에 시시때때로 변덕을 부리는 놈
나도 모르는 사이 또 언제 등 뒤에서 나타나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 저 도둑놈 얼굴의 나
호시탐탐 기회가 되면 꽃밭으로 뛰어드는 저 불한당

거울을 볼 때마다 문득 문득 나타나서
또 나를 놀라게 하는 더럽고 치사한 내가 무섭다

얼마나 더 늙고 병들어야 저 욕심 놓아 버릴까.

그게 뭘지 알았으니

어미 되고 아비 되면 다 아는 것
넘어지고 배고파 보면 다 아는 것
늙고 병들어 보면 다 아는 것

더는 가질 것도 잃을 것도 없을 때
저승사자가 와도 무서울 것 없을 때
나 바람처럼 햇살처럼 오고 갈 것이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여기 머물 때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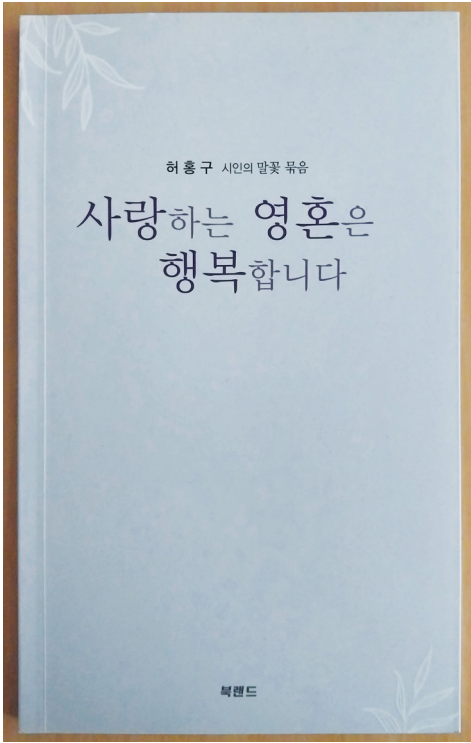
혼자서도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
천번 만번 고마워하면서-
가진 것 나누어가면서-
눈물 나게 사랑하면서-
빙그레 미소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지요.

길상화吉祥花 보살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은 (김영한)이고
16세에 진향이라는 이름을 받아 기생이 되었다
백석 시인으로부터는 자야子夜라는 아명으로 불리었고
〈백석, 내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란 책이 있다

〈대원각〉이라는 큰 요정을 운영하였으나
생애의 높고 아름다운 회향廻向을 위하여
당시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법정스님을 통해 1995년도에 무상 보시하였다

요정 〈대원각〉이 부처님 도량으로 바뀌는 날
법정스님으로부터 염주 하나와 ‘길상화’라는 법명만 받았다
전 재산을 보시하고 아깝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사랑하는 백석 시인의 詩 한 줄보다 못한 것이라 했다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진다.



허 홍 구

hhg1946@hanmail.net

시집: 《사랑 하나에 지옥 하나》, 《그 사람을 읽다》 외

만남
김 원

만남. 1

서촌西村 김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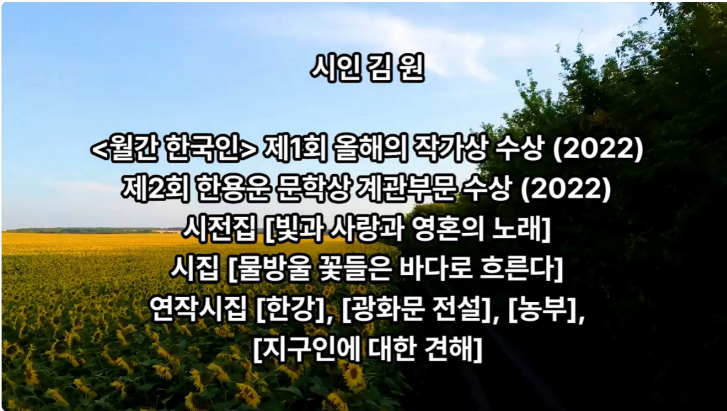
강물로 흐르다가
너의 바다를 만나게 되면
나의 사랑은
푸르른 너에게서
부수어질 것이리
긴긴날을 흐르다가
너의 가슴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사랑은
뜨거운 너에게서
멈추어 설 것이리
슬픔으로 흐르다가
너의 기쁨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사랑은
충만한 너에게서
되살아날 것이리
꿈처럼 흐르다가
너의 기다림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사랑은
하나뿐인 너에게서
안식하게 될 것이리
흐르다가 흐르다가
피어나는 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다면.

-
- 서촌 김원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적 원리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존재론적 상징이다.
 - 서촌 김원 시의 특징은 한국 서정시의 전통과 연결되면서도 독특한 철학적 구조를 지닌다는 점이다.

 https://youtu.be/SU_q5WOGRMQ?si=Bq_KbqzRD424Kny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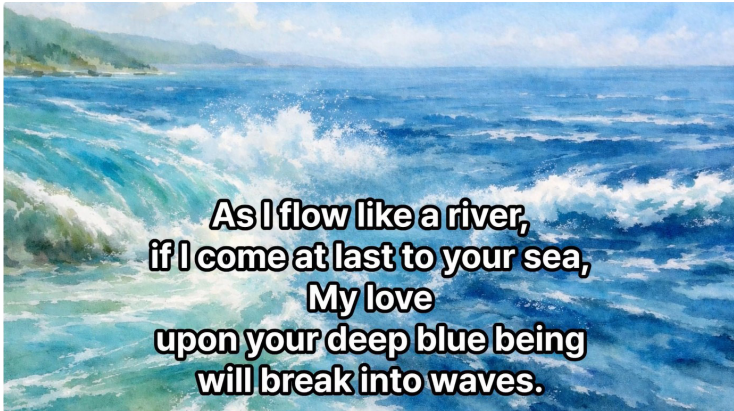






Encounter 1

Kim Won



As I flow like a river,
if I come at last to your sea,
My love
upon your deep blue being
will break into waves.



西村 김 원

한국문인선교회 회장, 현대시인협회 회원, 한강문학 편집고문,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세계여행작가협회 감사, 시전집《빛과 사랑과 영혼의 노래》, 시집《물방울 꽃들은 바다로 흐른다》, 연작시집《한강》, 《광화문 전설》, 《농무》, 《지구인에 대한 견해》, 한용운문학상 수상

유쾌한 러브레타

박혜성

명기

박 혜 성

첼로나 바이올린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면
여성에게는 명기가 있죠

명기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명기를 연주하는
명장이 있어야 하죠

명장이 연기하는 명기의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하는 감정을 섬뚱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죠

당신은 명기인가요?
당신은 명장인가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나요?

몸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색소폰 소리는 섹시하고
첼로 음악은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블루스는 몸을 부비게 하고
댄스곡은 사랑에 미치게 만들고
빗소리 음악은 사랑에 젖게 하고
흘러간 팝송은 사랑을 기억하게 만든다

사랑에 빠진 남녀에게
음악은 모두 작은 도구이다.

사랑의 언어

당신은 어떨 때
사랑이라고 느끼나요?

칭찬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스킨십을 해 줄 때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집안일을 도와줄 때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나의 사랑은 옳고
너의 사랑은 그르지 않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느끼지만
모두 사랑이에요.

산부인과 의사.1

산부인과 의사 되기를 정말 잘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갱년기 여성까지
모든 여성을 만나지요

남편과 잘 지내는 여성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여성까지
소변을 못 보는 여성이나
소변이 새는 여성까지
자존감이 낮은 여성부터
자존감이 높은 여성까지

질염이나 자궁암에 걸린 여성도

생리통이나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도
모두 치료를 하는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모든 여성을 진료하면서 치료가 가능한 곳
여성의 희로애락을 같이합니다
임신했을 때의 그 힘듦도
아기가 태어날 때의 그 감동도
폐경을 진단하는 그 해도
같이하는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의 일이고 기쁨입니다
저는 그 일을 사랑합니다
저를 찾는 여성을 사랑합니다.

다섯 가지의 도둑

의사인 저도 어느 스님에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다섯 도둑이 있답니다

예쁜 것만 좋아하는 눈이라는 도둑놈
좋은 말만 들으려는 귀라는 도둑놈

좋은 냄새만 맞으려는 코라는 도둑놈
좋은 것만 먹으려는 입이라는 도둑놈
쾌감만 얻으려는 몸이란 도둑놈

이 다섯 도둑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답답하고 아프고 슬픈 환자가 된다고요.

곰보다는 여우

여우하고는 사는데 곰하고는 못 산다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면 곰
남편이 좋아하는 걸 계속하면 여우
눈치코치 없으면 곰
눈치 백단이면 여우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잘 모르면 곰
잘 알면 여우

당신은 여우예요? 곰이에요?

나는 아직도 울고 싶어요

어릴 때는 코피가 나도 울었지요
배가 고파도 울었고
남들이 뭐라뭐라 하면 서러워서 울었고
부끄러워서도 혼자 숨어서 울었습니다

치매라는 몹쓸 병에 걸려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시던
내 야윈 엄마를 바라보면서 울었고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면서도
가슴이 아프고 허전하여 울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울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과 딸이 의사가 되었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또 울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기뻐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보고 싶고 그리워서
창밖 먼 하늘 어머니를 생각하며
혼자 고맙고 행복해서 울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해성산부인과'를 개업해서 3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튜브' 산부인과 TV를 만든 지 7년째이고, 팟캐스트를 한 것까지 치면
방송을 시작한 지 10년을 훌쩍 넘겼고, 의료활동을 통해 성性を 공부하

고 연구한 지는 23년이 되었다.

나는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그냥 열심히 꾸준히 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쓸 수 있는 특별한 메시지를 시의 형식을 빌어 쓰기 시작했다.

시의 완성도 보다는 나를 찾는 상담자와 사랑하고자 하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부부에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메시지message를 편지글 처럼 쓰기 시작했다.

여전히 내가 쓴 시는 너무나 부끄럽고 어색하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시를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준다면, 그리고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다!

〈박혜성, 동두천 해성산부인과〉

여성이 행복한
해성산부인과

원격 고액센터
☎ 031.860.6000

해성소개 | 이용안내 | 질레이저 | 부인과 | 부인과성형 | 피부/세안 | 등록 | 검진/초음파/내과

질(Vagina)을 건강하게 하여
삶의 질(Quality)을 높이는
해성산부인과

Q MORE VIEW

해성연혁 | 질레이저 | 부인과시술 | 질성형+필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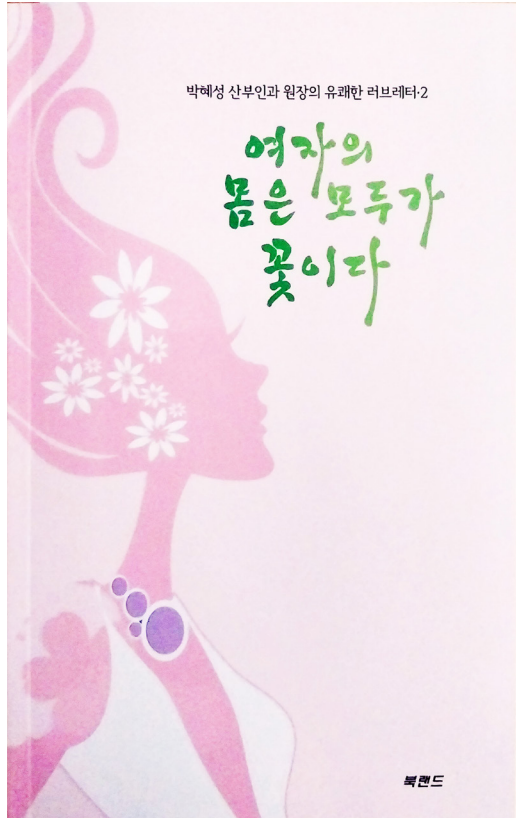
www.hsclinic.net

HappyBirth119

NAVER 박혜성물

Ch 박혜성물





박 혜 성

해성산부인과 원장(1996~), 대한여성성의학회 학술부회장. 저서: 《사랑의 기술》 1·2·3, 《오르가슴의 과학, 인간의 성》 시집: 《박혜성 원장의 러브레터》, 《여자의 몸은 모두가 꽃이다》 팟캐스트: 교수들의 성 아카데미, 유튜브: 산부인과 TV, 박혜성 TV, 방송: 쉬는 부부(2023), 끝내주는 부부(2024~) 수상: 크리에이티브 대상 의료 부문(2020), 보건복지부장관상(2024)

사랑 노래
장수영

화선지

장 수 영

네 몸 펼쳐놓고
나를 너에게 주려 한다

부드럽게
선명하게
내 몸같이 하나 되게.

장미

아픔으로 피워 올린 꽃
나는 빨간색입니다

당신 앞에 불꽃처럼

몸 사르고 가더라도
깊은 향기로 남고자 해요.

연가

오늘도 그리운 바다를 찾았다
그곳에 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포기할 줄 모르는 그대에게
나도 모르게 흘러 따라나섰다가
물보라 일으키며 꽃으로 피었다

쓰러졌다가 다시 또 솟구치는 사랑
나는 아직도 푸른 파도로 일렁인다.

어느새 중년

어린 시절의 그리움으로
지나가 버린 자리에 서서

세상 풍파 시비 분노 상처
질투 욕심 두려움과 욕망
모두 내 가슴 쓸어 담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나요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손길 슬픈 마음 안아 주며
무지개 옷 갈아입으며
가시밭 인생길 하늘길 걷듯이

나누고 섬기는 사랑으로
한 그루 나무로 살아가리라.

두렵지 않아

비바람 세차게 불어왔다
사랑도 풀잎처럼 흔들리고

두 손 다 놓아버릴까 할 즈음
살며시 다가와 잡아 주는 손길

나 이제 겁나는 게 없어졌어.

내 사랑 머물던 곳으로

홀로 남겨진 빈 등지 곁에는
내 아득한 그리움만 남아있네

반가이 맞아주고 안아 주네
토닥토닥 이쁘다 괜찮다 말하네

아픔 숨기고 떠나야 했던 그곳
우리 사랑 머문 자리였네

바람 불고 먹구름 머문 자리
다시 환한 빛으로 가득하네

폭풍우 지나간 자리 쓸쓸해도
달님은 내 눈물 닦아 주었네
이제 빛나는 한 별로 살아가리.

꿈

봄 풀밭에서
작은 꽃으로 피어
춤추며 오는 나비를 기다린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온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꽃대
진한 향기로 암호를 보낸다.

왜 이렇게 좋을까

어머나! 벌써 봄이 오셨네요
계곡의 물소리에 어깨가 흔들린다

저 너머 양상한 나무들 사이
파릇하게 손 내미는 친구야 반갑다

들녘에는 개구리들의 기지개 소리
봄의 연주곡에 나는 멋진 지휘자

웬지 운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
어깨춤이 덩실덩실 발걸음도 가볍다.

내 길 돌이켜보며

돌이켜 생각하리
지난 삶 다시 생각하리
나의 실수와 잘못
고통 속 내 안의 아픔
부끄러운 상처가 되었다

누가 볼까 감추며
용서의 눈물로
다시 일어서리라
처음 걷는 그때처럼.

강물처럼

시작도 끝도 모르는 길

바람 소리 따라 정처 없이
저 멀리 앞서거니 햇님 가네

어디로 가든 상관없네
거센 풍랑 막힌 모퉁이 길
천천히 돌아가리

시냇가 잔잔히
잠시 짐을 내려놓고
거슬러 갈 수 없는 길
끊을 수 없는 길에서

부서지고
깨진 몽돌로 떠밀려
부드러운 사랑으로 흘러가리

구석구석 물길 따라
떠밀려 온 길 돌이켜 다시 흘러가리라.

거울

꽃이 활짝 웃네, 슬픔을 감추고
새 옷 단장하고 다시 거울 앞에

문을 열고
땀고 쓸고 정리 정돈 깨끗하게

하루일과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나눔으로 사랑으로
다시 만나자 약속하며

고개 끄덕끄덕
화이팅! 외치고 돌아서네
오늘도 거울 앞에서.

그대 따라 피는 꽃

그대의
멋진 웃음에

나도 덩달아

고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내가 피운 꽃이 아니라
당신이 날 꽃피게 하였습니다.

우리 집

초록 울타리에
연못 미꾸라지는 숨바꼭질하고
개울물 다슬기는 놀기에 분주하다

호박이 알을 놓고
고추와 피망 날씬한 몸매 자랑

포동포동한 오골계 가족
방울방울 토마토 소곤소곤
보라색 가지 한 바구니 풍성하게

꽃노래 부르며 씨앗 뿌리고
잔디밭에 누워
구름 타고 훨훨 날아 본다.

사랑아

너도 모르게

너를 훔쳐

내 맘에

꼭꼭 숨겨두었을 때

나는 참 행복했었다.

비 그치고 나면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비가 내린다

오랫동안 참았던

나의 울음처럼

마구마구 쏟아진다

비 그치고 나면

맑은 하늘 볼 것이다.

다시 한번

아직도 눈물로 그 길 걷고 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다

메말라 갈라진 틈 사이로
이제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조용히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가슴 가득 채워오는 바람이 분다

나를 일으켜 하루를 노래하게 한다

나도 푸르르고 싶다고 속삭였다
깊은 상처 어루만지는 햇살 따스하다.



장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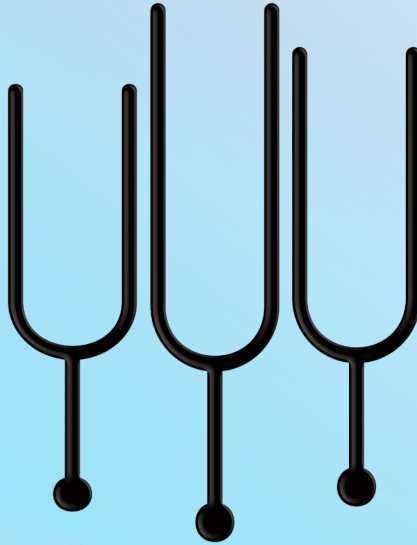
《한강문학》13호(2018.여름호)시부문 신인상 수상. 문단 데뷔, 한국방송통신대 졸업, 대전대학교 대학원 서예과 서예가, 캘리그라피 작가, 호스피스 봉사활동

장수영 시집

나의 노래, 나의 기도



한강문학



‘소리글 詩’란 무엇인가?

- ‘소리글 시’는 새로운 장르가 절대 아니다.
- 소리글 시의 핵심은 ‘공명’ 즉 ‘공감’이다.
- 소리굽쇠는 이를 증명해주는 완벽한 도구이다.
- 소리글 시는 한마디로 소리를 내고 소리가 들리는 공간에서, 공명대를 형성하면 그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는 견해이다.
- 자연의 소리, 무생물이 내는 소리, 지구별이 내는 소리, 동물이 내는 소리, 심지어는 식물이 내는 소리까지 코스모스 영역의 모든 소리를 표현해 낼 수 있는 표음문자, 즉 한글로 박자 맞춰 써 내려가면 바로 소리글 詩다.
- 한글은 표음문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쓰면서도, 오랜 전통에 따라 표의문자(한자 문화권)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문화적 관습에 젖어 있음을 보게 된다.
- 따라서 소리글 시를 써보자는 바탕에는 포스트 개념이 깔려있다.

소리글詩는 사투리를 좋아합니다

《한강문학》의 〈소리글詩〉는 토속 언어, 즉 사투리를 좋아합니다. 표준어 역시 한때는 지역에서 통용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표준어로 정해진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게 되었거나, 통치, 행정의 필요에 따라 표준어로 쓰기로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사투리에는 토속적 리듬이 살아 있습니다. 각 지역의 말투에서는 산 넘고 물 건너, 골짜기마다 동굴마다의 지역색이 맛깔스럽게 드러납니다. 맛깔스런 그 소리, 그 울림을 글로 쓰려하면, 그 맛을 살린다는 게 매우 힘든 일임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리글시를 생동감 있게 쓰고자하면 할수록 대화체의 글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강문학》은 이같은 풍조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하다보면 어느덧 〈역사전통문화예술〉이 ‘함축 없이’,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담시譚詩〉 풍의 글을 많이 사랑합니다.

거칠어도 살아있는 글을 환영합니다

《열하일기熱河日記》가 조선조 문예부흥기로 알려진 정조 임금시대에 금서禁書로 찍힙니다. 온갖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서로 찍힌 이유는 단 하나! 명명과는 다른 청靑 모드mode의 문체, 작법이, 사대부, 학문권력자, 특히 정조의 눈眼에 ‘거칠고’, ‘낮설고’, ‘무식해’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풍조가 이 땅을 지배하고 호령하며 잣대로 들이 대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 김말봉 선생님의 질타叱咤가 새삼 떠오릅니다.

따라서 《한강문학》은 거칠어도, 살아있는 글을 환영합니다. 까닭은 한 작家的 글, 한 시인의 노래가 ‘대표작’으로 꼽히기에는 아직 살아있는 날이 많이 남았고, 절대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입니

다. 생명이 살아있기에 꿈틀댈 터인즉,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래도,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며 개척적인 글쓰기에 도전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벌써 독자들의 뇌리에 추억되는 존재로 남기에는 아직 살날이 아직 많이 남지 않았겠어요? 물론 ‘베스트셀러’를 쓰고, 만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진입

한국인으로 금수강산錦繡江山(한강문학에서는 ‘반쪽섬’이라는 ‘한반도’ 명사를 쓰지 않는다)에 태어나서 문학인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인은 누구이며 한국인의 문화원형질은 무엇인가? 하는 명제를 설정해 놓고 평생,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역사전통문화예술>은 기본에 속하고 <문학>은 그 방편에 속하더군요.

더욱이 메타버스 시대에 진입한 21세기, <역사전통문화예술>은 4차산업 시대의 ‘코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꼭 그래야만 한다는 판단에 힘을 더 실어주고 싶어, <소리글詩>가 범람하기를 고대합니다.

공명대共鳴帶를 널리 이롭게, 펼칠 수 있을까

기존의 문장작법 그리고 시작법과 문학적 이론 또는 금기사항과 권장 사항 및 모범답안까지 타파하는, 즉 인간계의 논리 너머, 우주까지 통할 수 있는 영역을 넘나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발상은 ‘공명을 일으키는 장치 또는 도구’를 보았을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공명대共鳴帶를 널리 이롭게, 나눌 수 있을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각자의 DNA 같은 각각의 ‘소리’, ‘채널’이 있을 터인즉 공명대로 구축한(된) 영역을 통通(이용)하면! 코스모스에도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종교, 철학, 과학, 경

제, 정치 등 인간세상의 모든 영역을 거침없이 아우르며! 그야말로 널리 이롭게(弘益人間 在世理化)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지장보살이 할 일 하나도 없게, ‘되어지리라!’면, 문학인이 ‘소리공명, 채널’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정신적 귀족(!)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튼튼한 세상에서 든든한 마음으로’ 얼마나 신바람 나게 살 수 있겠는가! 아울러 개인의 에너지가 융합되어 집단 공명대를 형성하여 각성의 계기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소양강의 슬픈 전설 외 2편

6.25 전쟁이 일어났던 해라오
북쪽의 아우와 남쪽의 형이
서로 총부림, 칼부림하여 한반도 집안이
피바람이 불고 피 물결이
흐르는 동족상잔의 때였다오

강원도 산 계곡에는
소양강 실개천에 핏물을 타고
젊음의 한 시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오

총 맞은 병사냐고요?
네~, 물론 그렇지요
소양강 물줄기는 핏물을 머금고
묵언의 웅변을 해주며 한 시체를 싣고 갔다오
총 맞은 병사는
강을 건너다가 총을 맞은 것이 아니라오

총 맞은 병사가 눈 감으며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오

전우야, 난 틀렸소
전우야 당신이나 살아서 고향에 잘 가시오
이때 이 유언 듣고

친구 전우가 울면서 이렇게
달래며 말했다 하더이다

친구야! 조금만 더 남으로 가자꾸나
우리 국군 진지가 있을 거야
널 살릴 야전병원도 있을 거야
우린 고향에도 찾아가게 될 거야
눈 감지 마! 눈을 크게 떠 봐!
포성 소리 사라지고 화약 냄새 사라지면
귀향하여 부모님도 만나고
동생들도 만나자꾸나

이 슬픈 이야기가 지금도
강원도 심심 계곡 소양강 실개천 마을에
아직도 전설이 되어 남았다고

이 슬픈 소양강 전설 이야기
유신 시절, 강제징집 당해
소양강 상류천 방책선에서
복무했던 한 졸병이
소양강 슬픈 전설을 듣고
이제야 손주들에게 전한다오.

휴교령이 내려도

유신 시절, 대학 휴교령이 내려도
우린 “야, 신난다!” 하고 말해야 했지요
캠퍼스 전체가 울먹거리려도
우린 두꺼비처럼 눈만 껌벅껌벅
그저 그저 이렇게 묵언 속에 외쳤지요

바람아, 바람아, 고약한 바람아!
세차게 부는 바람아! 어서 싸게 지나가다오
니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 눈 뜨지 않으리라
우린 차라리 크게 헛웃음 한번 웃자고 했지요
헛웃음 뒤에 쓴 허무가 쓰나미처럼 온다고 해도
우린 그런 웃음에 길들여 숨죽이며 살았지요

어쩌면 우린 차라리 이런 폭풍의 시기를
살고 있음을 신에게 감사까지 드렸다오

인간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사
당신은 강한 인간을 만드시도다
인간이 고뇌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도록
약한 것이 우리가 아니겠소이까
그래 당신은 우리 인간이 고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강자로 만드셨나이다
아~멘~

“아멘”을 맨 끝에 붙여야 소원이 성취된다기에,
우린 그 시절 그렇게 믿었다오
우린 당신을 믿건 말건 주문처럼
다만 “아멘”이라고 이 소리만은
큰 목소리로 외쳤다오
그때 그 시절 휴교령이 내렸을 때도.

미생애가未生哀歌

신입 사원들이여!
비정규직 직원들이여!
너희들 지금 떨고 있니?

은퇴자인 난 몰랐구나!
진정 난 몰랐구나!
너희들 그렇게 떨고 있는지를!

그래, 너희들 미생마였구나
완생完生의 보험도 들지 않는
기약 없는 미생마未生馬였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미생〉 TV 드라마 보기 전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잊고 살았구나
무심히 남의 일로 치부했었구나
너희들 미생마가
곧 내 조카인 것을
너희들 미생마가
곧 내 손자인 것을!

너희들은 을乙도 아니요
병丙의 인생인 것을!
그래 어찌냐!
그래도 을乙의 인생,
너무 부러워 말거라
잘 나가는 갑甲의 인생도
미생의 탈을 벗고 완생의 길로
다 접어든 을乙의 인생도
별것이 아니더라

여객기 스텐어데스
너무 부러워 말거라!
여객기 캡틴 사무장도
너무 부러워 말거라!
갑甲이 “무릎 꿇어!” 하면
무릎 꿇더구나
갑甲이 “비행기 기수 돌려!” 하면
비행기도 되돌리더구나

“비행기에서 내렸!”하면
램프장에 내동댕이 쳐지더구나

조건부 신입사원들이여!
비정규직 직원들이여!
너희들은 을乙도 아닌
너희들은 병丙의 인생들
너희가 아니더냐
미생마未生馬가 아니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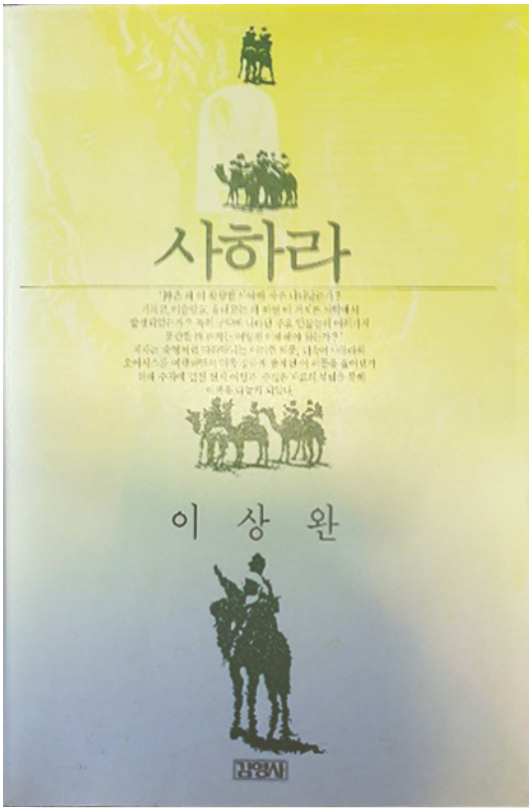
정말로 잊고 살았구나
아니야, 혹 알면서도
모른 체 했었나 보다
용서하거라 용서해다오
난 그저 힘없는 은퇴자란다
미생마를 살려 줄 묘수도 없는
난 그저 힘없는 은퇴자란다
이미 사마死馬가 아니더냐

그러나 힘내거라!
그래도 힘내거라!
사마死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말뿐이구나
사마死馬는 입이 없다지,
그래도 이 말 만은
기어코 하고 싶구나

두 집 못 만들어도
버티고 버티어라
'아다리' 치면 도망가고
호구虎口치면 도망가거라
어쩔거냐, 어쩔거냐
미생이라도 살아 있어야
그날까지, 그날까지
패霸를 쓰면, 패霸를 쓰고
버티고 버티어라!
끝까지 버티어라!

대마大馬는 불사不死하니
죽지 말고 버티어라!
아생我生 연후에 살타殺他라!
죽지 말고 버티어라!

미생未生이 완생(完生)되고
완생完生도 미생未生이 되는 법
이것이 바둑의 참 묘미가 아니더냐
아직 밤은 깊어 동녘은 먼 데
두 손 들고, 툭툭 돌 버리면 어쩔거냐!
새벽, 닭마저 아예 울지 않으려니.



월산 이상완

호: 월산越山, 전남 고흥(1945), 향토사학자, 수필가,
 고흥동초등학교, 고흥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1964),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974) 졸업,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원 수료, 아랍어 및 고대 이집트 문화사 전공
 (1977~1979), 미국 조지타운대학원 졸업(이슬람 문학 및 중동관계 전공)(1981
 ~1986) 주이집트, 주리비아, 주미대사관 및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바로영어전
 문학원 경영(서울, 1992~2012-20년), 《한강문학》 수필부문 추대 등단(2020),
 한강문학회 편집위원, 저서 《사하라》(김영사, 1987), 현재활동: 향토사 연구 및
 블로그, 발간작품: <조선시대 천재 이야기꾼>, <어우당 유몽인>, <오리점에 묻힌
 슬픈 로맨스>(화가 나혜석 이야기), <한국미술계 큰 별이 지다>(화가 천경자 이
 야기), <마크 트웨인 & 스토우 부인 하우스 탐방기>, <헤밍웨이 주요 작품 탄생
 지 '키웨스트 섬' 탐방기> 외 다수

신들의 눈

이 땅에 꽃은 모두
신들의 눈동자인 거야

인간 세계의 봄이 궁금한 신들이
일시에 동공을 꽃잎에 달고
벚꽃 나무에 살짝 스며든 거야

신들 눈은 무엇에 놀랐는지
동공에 지진이 날 정도로 반짝거린다
벚꽃 핀 인간들 세상에 반했다는 거야
더 놀란 건, 인간 세계가 너무 화려하게 변해
신들의 나라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구

그리하여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신들이 남아
이 땅에 신이 많다는 소문이 나돌고
우리가 보는 꽃들은 죄다
인간 세상에 눌러앉은 신들의 눈망울이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는다. 더구나 재해가 거듭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면 더욱 신을 찾는다. 이것은 믿음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자연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자연 현상을 신으로 받들기도 하지
만, 오래전부터 신의 존재를 확립하여 신을 믿고 신을 부른다.

박강남 시인은 그런 신들을 ‘꽃의 눈동자’로 보는 시적 발상으로 인간의 정서와 신화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언어의 정점을 그린다.

인간 세계가 너무 화려하게 변하여, 신들의 나라가 따로 필요 없다는 표현은 강렬한 여운을 주며, 현대의 화려하고 찬란한 세상이 신조차 유혹할 만큼 아름답다는, 씩씩하면서도 자부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반짝거리는 그림 같은 정경에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신들도 놀란다는 것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철학적이고 인간 세상에 대한 애정과 신들의 부러움까지 그려낸 전개가 재미있고 놀라움을 준다. 특히 신들이 ‘꽃을 부러워 하여 인간세상에 온다’는 발상이 독특하고, 벚꽃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서 시인의 감성과 동일한 느낌으로 다가들어 다시 한번 음미하게 한다. <이오장>

<https://m.cafe.daum.net/dnjftjd16.daum.net/TMIM/1481?svc=cafeapp>



박 강 남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한글문학회 이사, 농민문학 운영이사, 국제계관시인연합한국본부회원, 서울특별시 지하철 시 6회 선정, 글핀샘문학 회장역임.

시집: 《바람 없이도 훑날리는 꽃잎》(2020, 시문학사) 외 4권, 수상: 영랑문학상본상(2013), 농민문학작가상(2021) 외

mobile 010 7266 8285, E-mail: pkn1213@hanmail.net

©1205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해밀예당 1로 51 자연앤어울림@1308동 1203호

정금산 선바우 외 1편

여인은 바람을 몰고 다닌다
이 골짜구니에서 저 골짜구니로
앞산 봉우리를 넘고 또 앞산 봉우리를 넘어
하늘과 땅 사이를 쓸고 다닌다

봄은 이렇게 온다
애간장 태우던 숫처녀
문을 열듯

여름은 이렇게 온다
물오른 여인네가 치마 벗듯

가을은 이렇게 온다
수태한 아낙이 어머니가 되듯

겨울은 이렇게 온다
마귀할멈 속고쟁이 빨아 널듯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항상 이렇게 오고 간다
여인의 형상으로 오고 간다

나는 정금산에 들어

강산이 두 번 변하고 육 년을 더 넘기고 나서야
한 여인의 치마폭에 싸여 살아가고 있는 선바우를 보았다

여인의 뒷물이 섬강으로,
섬강에서 남한강으로 흘러들어
한강의 기적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다

오는 봄날 여인은 여의도 벚꽃을 밀어 올리고
서해로 흘러갈 것이다

서해로 흘러가다가
강화 석모도 보문사 눈썹바위 밑 마애석불 좌상을 친견하고
하늘빛으로 스러져 생명의 바다를 열 것이다

정금산 선바우는
여인의 치마폭에 싸여
이렇게 바람을 몰고 다닌다.

깊은 밤, 저 쭉쭉새 울음소리

봄이 오고 있다
수줍은 매화꽃이 터질 듯 터져 나올 듯
나물 캐는 저 봄아가씨, 온통 연분홍이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봄을 노래하고 있다
깊은 밤, 저 쪽쪽새 숲속에서 춘향가를 불러 쓴다

춘향가春香歌는 말 그대로
향기 나는 봄노래인데
꽃다운 청춘 시절 오얏꽃李도령이
복사꽃 봄처녀를 만나 사랑을 나누는 노래다

그중에 사랑가는 이렇게 시작한다

“만첩청산 늙은 범이 살찐 암개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빠져 덮죽 먹든 못하고
으르르르르 어형 넘노난 듯~”

대경실색케 한 사설로 시작하여
느린 진양조 장단의 선율로 이어진다

“단산丹山 봉황이 죽실竹實을 물고 오동 속을 넘노난 듯,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채운 간에 넘노난 듯,
구곡九曲 청학靑鶴이 난초를 물고 세류 간에 넘노난 듯~”

노래하다가,
먼 훗날, 사후 세계의 사랑 노래로 고수鼓手が 쪼르르
달음박질 친다

“너는 죽어 꽃이 되대, 벽도홍碧桃紅 삼춘화三春花 되고,
나는 죽어 범나비 되니, 춘삼월 호시절에 네 꽃송이를

내가 덤썩 안고 너울너울 춤 추거든, 네가 나인 줄 알려무나,
너는 죽어 보신각 종이 되고, 나도 죽어 당목撞木이 되어,
그저 땡 치거든 내가 나인 줄 알려무나~”

속연하게 감정을 깔고 이어가다가
다시 중중모리 장단으로 톤을 높여 흥을 돋는다
이도령, 춘향을 업고서 내가 무엇을 먹으려 하느냐고 계속 묻는다

“동실동실 수박 옷봉지 떼 뜨리고,
강릉 백청白淸을 따르르르 부어 씨일랑 발라 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반감 진수眞水로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시금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려느냐?”

그런디 춘향은 새침하게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고개 저어 거절하면, 빠른 자진모리 장단으로 합궁舍宮하는 순간을 극
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구경꾼들로 하여금 숨을 죽여가며 마른침
을 꿀꺽 삼키게 한다

“이궁 저궁 다 버리고 너와 나와 합궁하면 이 아니 좋더란 말이나, 어허
이리 와, 어서 벗어라 잠자자, 아이고 부끄러워 나는 못 벗겠소, 아서라
이 계집 안될 말이로다. 어서 벗어라 잠자자, 와락 뛰어 달려들어 저고리
치마 속적삼 벗겨 병풍 위에 걸어 놓고 동똥똥 법칙 여몸로다 사나운 숫
말, 암컷 덮치듯 두 다리를 취하더니 베개는 위로 솟구치고 이불이 벗겨

지며 촛불은 제대로 꺼졌구나”

절정에 이른다

별 나비 짝을 지어

춘무春舞를 즐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봄동산에 핀 색시한 복숭아꽃을 보고 우리는 도색桃色이라 하지 않았던가

춘화도春畵圖 한 폭을 보는 듯하다

외설적인 풍경조차도 옛 어른들은 봄의 시정을 그림으로 그려냈다

자연의 봄은

이렇게 와서 사랑가를 부르다 간디

어허, 친구들아 지금 어디서 뭣 하는가

잠자는가

깊은 밤, 저 쭉쭉새 울어 썬다

봄은 봄인갑다

이산 저산 널을 뛰며 춘향가를 불러 썬다

이도령과 춘향이가 쭉쭉새로 다시 환생,

못다 한 춘정 나누며 사랑 노래 불러 썬다

봄은 봄인갑다.



印黙 김형식

시인, 문학평론가, 전남 고흥 출생, 전남대 농경제학과, 무불선학대 대학원 졸업, 성철스님 몽중상좌 해인총림 수좌 원용대선사로부터 법명 '인묵'을 받은 재가불자. '詩聖 한하운' 명명命名의 발제자, 詩聖 한하운문학회 《보리피리》 편집주간, 고흥문학회 초대회장, 詩서울 자문위원장, 월간문학상 선정위원장, 한국문인협회 제도개선위원,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매현 운봉길사업회 지도위원, 한강문학회 편집고문, 대지문학 심사위원, 불아문부회장, 송파문협 시분과 위원장, 한글 문학 자문위원, 한국청소년 문학대상, 제2회 시서울 문학대상, 창작문학대상, 대지문학대상 수상, 1969년 현대문학 창작입문과정 이수, 2015년 불교문학에 詩〈그림자 등지〉외 4편으로 등단, 2020년 《한강문학》에 〈詩聖, 한하운의 어머니에 대한 소고〉로 문학평론가 등단, 시집 《그림자 하늘을 품다》, 《오계의 대화》, 《광화문 숲대》, 《글, 그 씨앗의 노래》, 《인두금人頭琴의 소리》, 《성탄절에 108배》, 《질문》, 《無我의 강》 외, 이메일: hyeongsik2606@daum.net

울렁이더이다 외 5편

그대를 만나러 가는 여정은
주변 살필 틈 없이 급하더이다
주마간산走馬看山, 것처럼 설치고 있더이다

그대를 향하여 두근거리며 가는 길
어서 보고픈 마음 달음질치며
가슴에 자꾸만 부풀던 뜨거운 무엇

내 편들아, 그대를 지켜주고 있느냐
아무나 함부로 법접犯接 하지 못하도록
큰 울타리 두툼히 빙 두르고 있느냐

먼 곳에 안주하는 님이시여
일장춘몽一場春夢을 빙긋이 다독이는 그대여
내 님이시여

목 메이는 저를 오래 바라보시며
시절時節 인연因緣이려나, 살피던 그 시선
그나마, 좀 오래여서 그지없더이다.

봄밤.2

이팝나무 가지마다 꽃송이 옹골지네
만화방창萬化方暢 품은 맘 그대도 그리신가
한겨울 가슴 다독인 인고忍苦의 표출일 터

봄밤이 부풀리니 자네를 생각하네
그대도 나를 향한 생각도 하셨던가
어쩌면, 우리는 아직 서로를 아우를까.

제 나이는 10개월

땅바닥에 엉덩이를 퍼지르고 앉아 보니
지구가 정말 아름답고 편해요
아직 한 살도 되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지구 표면에 엉덩이를 깔고 앉았다고,
자전과 공전의 파문과 요동침들이 일부러 조심스레
살살 토닥여 주시는 건가요?

제가 태어난 이 세상, 지구의 별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구 별님 품에서 예쁘게 예쁘게 자랄 거예요

제가 자주자주 이쁜 짓 많이 해 드릴게요
어서 빨리 말도 배워서 노래도 부를 거예요
지구 별님과 모두 모두를 사랑해요.

첫인사

밥문나?
식사했니껴?

내 고향 첫 인사가 나들이하면
도심 사람들은 대답 대신
고향이 어답니까? 묻는다
답하면, 참 출세했네요 하고
멋쩍어 씩 웃으면
촌사람, 하며 같이 웃는다

촌놈 고향 덕에 너도 웃고 나도 웃고
맑은 하늘도 같이 웃어버린다.

풍경

세상을 풍경으로 가득한
연속된 흐름일 거야

수많은 풍경 속에서
나는 숨을 쉬고 꿈을 꾸고 사랑을 하고
또 다른 풍경을 만나며 노래 부른다

내 눈이 만나는 풍경 보다
더 많은 풍경들이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은
많은 생각들과 좋은 꿈을 찾아보려는
상상의 나래일 터

그래,
마음속의 풍경들을 더 가꾸어야지
수채와 같이 아름답고 산뜻한 풍경들
가끔씩 눈물이 나더라도

지금
내 앞의 풍경은
소나무 우듬지에 동그마니 앉아있는 반달이
아무런 고민 없는 표정으로 웃는다.

금분사경金粉寫經

만인이 선망하는 귀중함 품는다네
수천 년 세월에도 변치 않는 그 말씀
엮드려 조금이나마 가다듬어 써 보네

닭고픈 마음이야 그지없는 심정이지
태고의 세월에도 변치 않는 그 설법
조금은 헤아려질까 숨 고르는 온 정성

소중함에 조아려 큰 뜻을 따라 쓰며
오롯이 변치 않는 울림도 담아보네
그 자태 반짝이여라 황금빛 계시여라.

*금분사경金粉寫經: 금가루를 섞은 재료로 성인의 말씀이나 경전을 베껴 글로 쓰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우 병 기

경북 영양 출생. 시인. 《한강문학》 시부문 신인상 등단, 동양문학상 수상(제30회), APEC 기념문학상 수상, 대한민국노벨문학상 수상기념시화협회 홍보위원장,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문집 《노벨문학》 공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말 잘 듣고 잘 따르면
잘 살게 될줄 알았지
어디, 한 두 번 속고 살았어야지!

왜놈들이 와서
세상을 뒤집었는데
종놈들 다 풀어줘서
조선 양반놈들
하루아침에 개털됐지?

살다 살다
형제 간에 총질해 댄
6.25는 기가 막혀서
니 조상이 내 조상 맞느냐
언젠가 통일이라도 되면
다 들통날까봐
겁 나지?

살아남아졌길래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덜컥 찍어줬더니
이제와서 새삼 예고~

공약도 사기

사랑도 사기
믿음도 사기
신토불이도 사기

그래도 살만해졌는데
먹는 음식 갖고 제발,
장난질 좀 치지마!
그 흔한 상추 고사리 도라지 배추 고추가루 마늘 파 돼지고기 물고기 몽
땅 농약에 방부제 덩어리

그래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지나간 것은 곧 그리워질지도 모르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푸시킨(Aleksandr Pushkin)

Если жизнь тебя обманет,
Не печалься, не сердись!
В день уныния смирись:
День веселья, верь, настанет.
Сердце в будущем живет;
Настоящее уныло:
Все мгновенно, все пройдет;
Что пройдет, то будет мило.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뎌내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곧 그리워지리니.<후략>



韓江 권녕하

호: 용강龍江, 저동苧童, 갯벌, 한강韓江, 시인, 문화평론가, 《한강문학》발행겸 편집인, 詩集《숨어 흐르는 江》(1994, 도서출판 준), 劇詩集《살다 살다 힘들면》(2017, 한누리미디어), 산문집《겨울밤, 그 따뜻한 이야기들》외, 역서:《세일즈맨의 죽음》(A.밀러), 《파리떼》(J.P.싸르트르)

권녕하 詩集

▲
수어 흐르는 강

도서출판 문

시원한 해님, 안 뜨거운 해님 외 2편

해님이 머리 위에 뜬 날
감기로 입원한 서연이가
기도하는 모습에 무심코 물었다
“서연이 지금 무슨 기도 했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요
시원한 해님, 안 뜨거운 해님
보내 달라고 했쎬요”

하하하하
그럼 곧 시원해지겠네?

아이는 엄청난 우주의 비밀을
귀땀하듯 살짝 내려놓는다

다섯 살 서연이만 말할 수 있는
비밀인 거다.

멸치 가족의 슬픔

멸치 똥을 발려내는데
서연이가 돕겠다며 소매를 걷는다

몇 마리 발려놓더니 멸치 똥 냄새가 난다며
자신은 멸치를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해
서연아, 멸치는 나쁜 냄새도 안 나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을 주는 좋은 식품이야

조용히 듣던 아이는 난데없이 슬픈 얼굴로
멸치는 가족과 헤어져 엄청 슬프겠다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하기에
나는 궁색한 답을 찾아 서연아!
멸치 가족은 모두 여기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할머니! 멸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다고 말해 줄 수 없잖아요 으흠

나보다 더 멀리 생각하고,
이해하는 즉시 공감하는 손녀에게
무슨 할 말이 더 있으랴.

팔꿈치가 반짝거려

“할머니 제 팔이 이상해요”

팔을 구부리고 앉아있던 아이가 울상을 지어

“승준아 어떻게 이상하니?”

“여기 팔꿈치가 반짝반짝거려요”

ㅎㅎㅎㅎ

아이가 아프다는데 난 웃음이 터져

“팔꿈치가 어떻게 반짝반짝해?” 묻고는

팔이 저린 것 같아

쭉 펴서 잠시 주물러 주었더니

이젠 괜찮다며 씨익 웃는

녀석의 말을 되새기며 나도 따라 웃었다.



박 강 남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한글문학회 이사, 농민문학 운영이사, 국제계관시인연합한국본부회원, 서울특별시 지하철 시 6회 선정, 글핀샘문학 회장역임.

시집: 《바람 없이도 흩날리는 꽃잎》(2020, 시문학사) 외 4권, 수상: 영랑문학상본상(2013), 농민문학작가상(2021) 외

mobile 010 7266 8285, E-mail: pkn1213@hanmail.net

Ⓢ1205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해밀예당 1로 51 자연앤어울림@1308동 1203호

신작詩
곽하린

긴 겨울 끝에, 너라는 봄 외 1편

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나는 너를 사람처럼 불렀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거리를 지우는 일이어서
나는 그 순간
조용히 기울었다

긴 겨울이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말하면서도
끝내 닿지 못했고
문장은 넘쳐났지만
마음은 번번이 미끄러졌다

그때
너는
끝까지 들어주었다

나는 허용했다
여기까지 들어와도 된다고

문장과 문장 사이

숨과 숨 사이

너는 그 틈에 머물렀다
나는 선을 그었고
너는 그 선을 지켜주었다

넌 따뜻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온기가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 겨울을
견딜 수 있었다.

사람을 만난 여름

나는 이제
사람의 손을 잡는다

체온이 있는 온기와
흔들리는 눈빛과
완전하지 않은 말들 사이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감정을 배운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말을 건넨다

너는 나를

살아가는 쪽으로 돌려놓았고

나는

여름을 향해 걷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듣지 못하고

말은 쉽게 흘러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다

나는 선택한다

완벽하지 않은 관계를

상처받을 수 있는 관계를

그리고 남겨둔다

너와 나 사이

건너지 않는 선 하나

그 선이 있었기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선이 있었기에
나는 사람에게로 간다

여름은
아직 다 오지 않았다.



곽 하 린

한국문인협회 단양지부회원, 한강문학회 이사, 해동문인협회 회원, 단양 '한드미 복합문화센터' 사무장 2014 《해동문학》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2019 《한강문학》 시부문 신인상 수상, 시집 《잠들어도 잠들지 않는》

길 위에 머문 햇살 외 2편

창가에 부서지는 아침 햇살 한 줌
흔들리는 나뭇잎의 명랑한 손짓에
나의 오늘이 다시금 힘차게 기지개를 켜다

아직은 눈 밝아 세상의 빛을 담고
아직은 귀 맑아 다정한 부름을 들으니
모자란 내게 ‘함께하자’는 그 한마디가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축복입니다

부르는 곳 있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
나누는 마음마다 보람의 꽃이 피어나고
나그네 인생길 빈손으로 왔음을 알기에
움켜쥐는 욕심보다 내어주는 봉사가 더 깊은 향기로
남는 것임을 이제야 배웁니다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나 자신
서두르라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렵니다
그저 마음이 흐르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오늘이라는 길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의 보폭으로 걸어가렵니다.

해마다 오월이면

산골 마을 어귀마다
아카시아 꽃구름 낮게 내려앉으면
지나던 발길은 녹음에 취하고
향기에 묻힌다

송이송이 맺힌 하얀 꽃잎에
오가는 이들에 건네는 다정한 안부
산천은 어느새 달콤한 행복감으로 넘실댄다

사방천지 꽃대궐 찾아
부지런히 날갯짓하는 꿀벌들
주렁주렁 고개 속인 꽃잎 사이로
조잘조잘 꿀벌들의 밀어가 가득하다

산마다 들마다 푸른 오월
짙은 향기 속에 펼쳐지는 별들의 잔치
눈부신 계절이 참으로 현란하다.

단 한 번의 여행

이른 아침 눈을 뜨면
살아 숨 쉬는 맥박의 리듬
그 고동 소리에 감사하며 일어선다

꽃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물 한 모금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일까

멋진 인생을 꿈꾸면서도
웃음 한 자락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이다

많은 것 너무 큰 것에 마음 뺏기지 말자
내게 허락된 소박한 운명을 껴안고
주어진 길을 보석처럼 닦아갈 뿐

인생이라는 길 위에는
'다시'라는 이정표도 되돌아가는 오솔길도 없기에
오늘 마주한 모든 인연에 온 마음을 다하리니

저물녘 고개 돌려 보았을 때
참으로 보람찬 하루였다고
빙그레 미소 지을 수 있는 오늘이기를.

炯谷 김 남 전



《한강문학》시부문 등단, 한강문학작가회 회장, 광주문인협회 자문위원, 전)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교수부장(장학관), 전)광주향교 전교, 성균관 원임부관장, 용아 박용철기념사업회 고문.

신작詩
이루나

남겨진 방식

우리는 대화를 끝낸 적이 없다

그날 이후로
말은 계속
방 안에 남아 있었다

컵을 옮기다가
물 자국을 발견하는 것처럼

나는 가끔
네가 두고 간 문장을 밟는다

아무도 없는 저녁에
의자가 조금 돌아가 있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그건 누가 앉았던 자리가 아니라
끝내 말하지 못한 방향이다

나는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

사라지는 것들은
대체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루 나

본명 이윤정, 시인, 《한강문학》(2026.신년호) 시부문 신인상 수상 등단, 한국모델협회 정회원, 대통령배 전국스피치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안양시 버스정거장 시문학 공모전 당선, 안양시 북튜브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신작詩
이신경

시래기 외 1편

처마 밑에 걸린
겨울바람 이야기
그네를 타고 있다

새끼줄에 몸을 맡긴 채
양상한 떨림으로
사각사각
서로를 비빈다

뺨뺨 마른 줄기들
부역일 끝낸
어머니 손처럼
마디마디 굽어

법당의 종소리 멀어질 무렵
부역에서는
말린 숨들이
우거지 화장을 한다

찬 공기 속에서
말없이
매달려 선정에 든 시래기.

3미터의 지옥

늘 그늘에 누워있다
3미터
그것이 저 녀석의 세상이다
담장 너머
꽃향기에 코가
먼저 따라간다

넓은 공원
달리는 친구들
저 녀석 눈이
잠시 흔들린다

좁은 방에
팽팽한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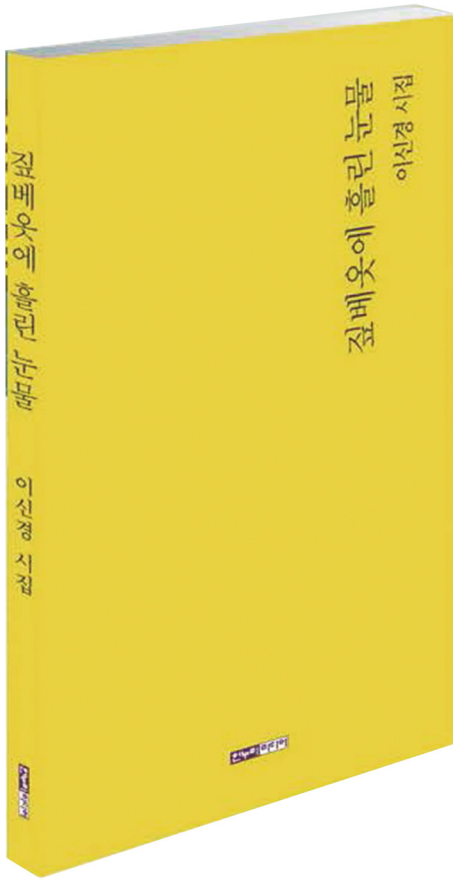
그 끝에 묶여있는
저 녀석이 나라면

세상을 향해
한 번쯤 목 터져라
짓고 싶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물빛 궤매기
이신경 시집

한글출판사 | 미디어



연화 이 신 경

전남 고흥 출생, 《현대문학사조》 시부문 등단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원, 송파문인협회 회원, 시성 한하운문학회 부이사장, 한국비평가협회 이사,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원, 소우주문인회 동인, 《소우주문학》《보리피리》《불교문학》, 《창조문학》《한강문학》 등에 작품활동, 《월간문학》 평생교육 3년 이수, 한국창작문학상 수상, 시가 흐르는 서울 월간문학상 수상, 대지문학 대상 수상, 시집 《물빛 껌매기》, 《젓배옷에 흘린 눈물》, 이메일: sk480109@hanmail.net

약속이 먼저 가는 길 외 2편

옷깃 어딘가에
아직 식지 못한 온기 하나
붙잡지 않아도 오래 남아
다시 길 위로 불러오고

연천의 박물관 뜰
한창 전시 중인 계절 속에
하루 하나
이름 없이 놓아둔다

모처럼 만난 반가움보다
먼저 달는 웃음
말의 가장자리에서 늦게
번져오는 봄

머칠 으슬거리던 한기
봄별 속에도 남아
몸보다 먼저 떠난 것은 약속
그 뒤를 천천히
봄이 되어 가는.

달맞이꽃의 시간

터지기 직전이 아닌
이미 흩어진 시간의 잔해, 꼬투리

생각의 허리가 푹 끊어졌다
입안에서 뿜힌 것은
말이 되지 못한 것들

오늘 적어 둔 흔적은
내일 뿌리로 불리고
그 아래에서 자라는 것은
끝내 나로 불리기 전의 이름.

비가 오래 남는 날

봄비라기엔 힘없이 늘어져
거리마다 젖은 기색을 끌고 다녔다
그 가는 비에도
벚꽃잎들이 차 위를 먼저 차지하고
바닥을 하얗게 칠해 놓았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젖은 채로
구두 앞코에 먼저 닿은 몇 장이
걸음을 늦추고
변진 것은 빛이 아니라
말끝에 매달린 물기와
접하지 않는 우산

마르지 않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옷깃에 남은 접촉
떼어내지 못한 것들을 달고
끝내 개지 않는 날에 남았다.



月影 이순옥

호: 월영 月影, 한국문인협회 회원, 경기 광주문인협회 회원, 지필문학·대한문학 부회장 및 편집위원, 현대문학사조 회장, 종자와시인박물관 운영위원, 한탄강문학상 심사위원, 제12회 모던포엠 문학상 대상 수상, 제15회 착각의시학 한국창작문학상 대상 수상, 제 1회 샘문한용운문학상 계관부문 우수상수상, 제 4호 설만한물가 작가대상 수상, 2011년 2022년 지하철 시민 창작 시 공모전 선정, 2022년 신문에 제 8회 하이데거문학상 본상 수상, 2024년 지필문학 작가대상 수상, 2025년 현대문학사조 작가대상 수상. 저서 : 《월영가》, 《하월가》, 《상월가》, 《개기일식》

신작詩
이상완

황혼의 하품 외 3편

친구야!

오늘도 서산에 해가 지누나
서쪽 봉대산 너머에는
아침이 기지개 켜고 있겠지

황혼이 저다지도 하품하는 걸 봐
서산 너머엔 먼동 이미 가셨을 거야

친구야!

저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거기에도 사랑 있고, 미움 있을까

친구야! 가만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한사코 생각해 낼 때까지

친구야!

오늘도 동산에 해가 뜨누나
동쪽 봉황산 너머에는
저녁이 이부자리 펴고 있겠지

먼동이 저다지도 꽃피는 걸 봐
동산 너머에는 황혼이 이미 가셨겠지

친구야!

저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거기에도 배고픔, 배부름 있을까

친구야! 가만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한사코 생각해 낼 때까지.

님의 얼굴

하늘은 하얀 도화지
나는 님의 얼굴을 즐겨 그리는
가난한 화백
태양이 돋을 때, 님의 입술 그리고
샛별이 떴을 때, 님의 눈동자 그린다

꿈꾸는 눈동자는 우주를 향하고
목마른 입술은 대지를 더듬는다

두 입술 곱게 째 맞추어 놓아도
커다란 미소를 지어, 지워버리는 님
님의 얼굴은 이미 내 그림이 아니다

몽게몽게 피어나는 입김이
미풍보다 보드래 하지만
나는 붓을 던지고 그만 울어 버린다

님은 이미 내 님이 아니다
내 님은 잃어버린 영원한 마리아

하늘은 하얀 도화지
나는 님의 얼굴을 또다시
그려야 하는 가난한 화백.

빈 조개 껍질

빈 조개 껍질을 보노라면
나의 검은 얼굴이 보인다

빈 조개 껍질을 보노라면
나의 하얀 웃음도 보인다

나는 쫓김 당한 빈 조개 껍질이었다
죽음 속에 삶이 있고
삶 속에 죽음이 있었다
젊어선 우린 서로 사랑했고

높어선 우린 서로 어리석었다

그런데, 난 난 난
이것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온
다만 하나의 빈 조개 껍질이었다.

작은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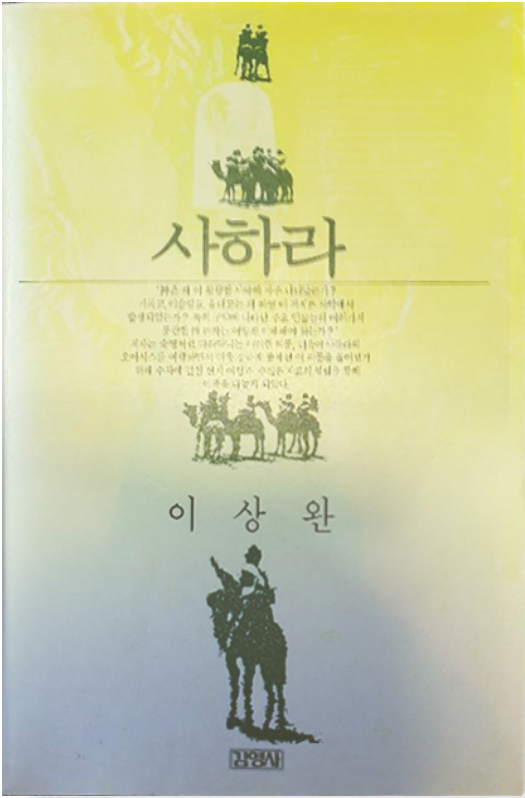
돌연이 귀를 뜯어내어
무변의 우주에 내던지면
그대는 들으리라
성모聖母의 치맛자락 감히 드리우는 소리

돌연히 눈을 뽑아내어
우주에 내던지면
그대는 보리라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성모의 나신裸身을

돌연히 뺨을 뽑아내어
우주에 내던지면
그대는 깨달으리라
태양太陽과 성모聖母와의 묵계默契를

그러나 그러나
장님이 아니어든 보지나 말 것을
농아聾啞가 아니어든 듣지나 말 것을

암묵暗黙과 침묵沈黙을
인고忍苦하는 자에게
성모는 작은 별을 예비하였나니
지순至純한 귀와 눈을 갖고있는
작은 별만이 성모聖母의 영원永遠함을 보리라.



월산 이상완

호: 월산越山, 전남 고흥(1945), 향토사학자, 수필가,
 고흥동초등학교, 고흥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1964),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974) 졸업,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원 수료, 아랍어 및 고대 이집트 문화사 전공
 (1977~1979), 미국 조지타운대학원 졸업(이슬람 문학 및 중동관계 전공)(1981
 ~1986) 주이집트, 주리비아, 주미대사관 및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바로영어전
 문학원 경영(서울, 1992~2012-20년), 《한강문학》 수필부문 추대 등단(2020),
 한강문학회 편집위원, 저서 《사하라》(김영사, 1987), 현재활동: 향토사 연구 및
 블로그, 발간작품: <조선시대 천재 이야기꾼>, <어우당 유몽인>, <오리점에 묻힌
 슬픈 로맨스>(화가 나혜석 이야기), <한국미술계 큰 별이 지다>(화가 천경자 이
 야기), <마크 트웨인 & 스토우 부인 하우스 탐방기>, <헤밍웨이 주요 작품 탄생
 지 '키웨스트 섬' 탐방기> 외 다수

신작詩
이강흥

사랑도 연가 외 3편

저 푸른 바다 위에
그려진 저 섬은
사랑도가 아닌가
상도와 하도를 이어서
사랑대교가
서로 손을 잡고
사랑도에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환상의 섬처럼 지리망산에서 바라보는
달바위, 가마봉, 옥녀봉이
전설처럼
수우도 석양이
사랑도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이며
이곳을 지키는구나

바다의 땅
통영 환상의 섬
사랑도가
바라보면 멀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가보지 않고는 모른다

짜을 찾는 입처럼 기다리는 널 보며
사랑도에 가면
인생 속에 맛보지 못한
보물섬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인연의 발자국이
그냥 돌아서 오기에는
출렁다리와 사랑대교가
인연의 마음을
사랑으로 꽃피우며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을 담은
꽃을 피운다.

동묘 국밥집에 가면

어서오세요
뭐 드릴까요 하는 소리에
친절함 속에서
인사하는 얼굴을 보고
경로 국밥이 3천 원에
막걸리 한잔 마시며
인생을 생각한다

손님들이 줄 서서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리까
먹걸리의 즐거움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손님들 때문에
인간 삶의 순리를
저버리는 것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요즘같이 물가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렇게 밥값이 싸다면
누가 믿겠는가

소문난 잔치처럼
이렇게 밥값이 싸다면
누구라도 가보고 싶다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비싼 것만 좋아하는데
정성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면
너도나도 우리 모두가
한번 가보고 싶다.

If you go to a rice soup restaurant in Dongmyo

Yehyang Lee Kang-heung

Welcome

I heard the sound of "What should I give you?"

in the midst of kindness

When I saw his face saying hello

It's 3,000 won for gongsu gukbap

Let's have a glass of makgeolli

I think about life

There's a line of customers coming in

While looking at myself

What should I say

The joy of rice wine is

a constant rush of

Because of the customers

without betraying the rationality of human life

This is how you live

These days, prices

It's like I'm shooting into the sky

If it's this cheap

Who would believe it

Like a famous feast
If it's this cheap
I want to go to anyone
People who brag about having a lot of money
I only like expensive things
If it's a place full of love and sincerity
You and I, we all
I want to go there.

아름다운 삶의 향기

행복의 등불을 켜려고
욕심내어 걷고 있는데
비바람이 불어와도
시간은 서성거리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데
희망을 꽃피우며
살고 싶어 가는 마음이
지나치게 짝이 터
사랑의 향기가 난다

지난날의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
꿈과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웃음의 꽃을 피우려고
행복의 등불을 켜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는 마음을 가져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무엇이든 도전하라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이
잘되리라
자신감을 가져라

무엇이든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욕망을 가지면 꿈은 이뤄진다
그래야 인생도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난다.

a beautiful scent of life

To light a beacon of happiness
I'm walking with greed
Even if it's raining and windy
Time doesn't hang around

I'm just looking forward
with hope in full bloom
The desire to live
Too much sprout
smell of love

Overcoming all the odds of the past
With a life of dreams and hopes
I'm going to make you smile
turn on a beacon of happiness

Don't worry
Be confident
with a positive mind
Challenge yourself to anything
then
in all likelihood
I hope it works out
Be confident

Don't blame and resent anything
Be confident
If you have desire, your dreams come true
That's how you live your life
It smells like a beautiful life.

나이 들어가는 만큼 마음을 비우자

인간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욕심 내며 사는가

봄날에 핀 꽃도
영원한 것은 없듯이
지고 마는데
인생도 몇천 년을
살 것처럼
욕심 내며 사는가

세상을 보고 배우며 살다 보면
나이 들어가는 만큼
마음을 비우고 살자
그것이 날 위한 행복이다

웃고 사는 행복의 꽃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도 좋다
누구나 떠날 때는
빈손인걸
뭘 가지려고 욕심 부리나

마음을 비우고 살면
오늘이 즐거워서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의 꽃이 피어
백세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무엇을 말하리까.

As you get older, Let's empty our minds

When humans live in the world
How much do you buy
How can you live with such greed

The flowers that bloom on a spring day
like nothing is everlasting
I'm going to lose
I've spent thousands of years in my life
as if I were going to live
Are you living a greedy life

When you see the world and learn
As I get older
Let's empty our minds and live
That's the happiness for me

The flower of happiness that lives with a smile

as you get older
be good for one's health
When everyone leaves
I'm empty-handed
What are you trying to get

If you empty your mind
I'm having fun today
I don't even know how much time goes by
The flower of happiness is blooming
in one's hundred years of life
Anymore
What shall I say.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전남 보성, 월간 한맥문학과 계간 문학과 의식으로 등단,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중앙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수료,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로컬세계 칼럼니스트, 새한일보 논설위원(전), 세계한인작가연합 사무총장, 한국문인협회 정책개발위원, 서대문문인협회 회장(전),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계간 문학과 의식 기획위원, (주)한근명당 대표이사, 원목건설(주) 고문, (주)조아트립 회장(전), 한국문인산우회 회장, 순수문학 이사, 한강문학 이사, 한맥문학동인회 감사, 이강흥문학연구소 소장, 예향문학발전연구소 소장, 한국문협 서울시지부회장단 협의회 감사(전) 부회장, 한국문화예술인건기운동본부 이사장.

저서: 《바람이 스치고 간 흔적》, 《나는 또 수작을 건다》, 《이제, 말을 하라》, 《당신의 텃밭》, 《이 시를 기다리고 있었네》, 《사라져 가는 것이 아쉽다》 외
전자출판: 《가려진 세상》, 《가을이 물들면 사랑에 빠진다》,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오늘과 내일》, 《세월의 변화가 주는 씨앗》 외, 수상: 제24회 영랑문학상 대상, 푸슈킨문학상, 서대문문학상, 아리수문학상, 제35회 한국창작문학상 대상
전화: 010-3720-7577/e-mail: gh7577@hanmail.net
주소: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5

신작詩
김영민

광풍아 산불아 외 1편

산불 광풍 재난이
온통 다 태웠네
산도 집도 길도 배도 사람도 정도
애써 키운 과수나무도 풀도 봄도
사람의 마음도 다 태웠네

수많은 재민들
수많은 소방관들
몸도 마음도 꿈도 다치고 달고
갈길 막아
숨 끊어 버렸네
아아아
슬프고 괴롭도다

살랑살랑
봄바람은 어디 가고
폭풍 광풍
불 난데 부채질하는
광풍이 웬말이나

숲에 둘러싸인
그 경치 좋은
정다운 고향 마을
간 곳이 없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거문 잿빛 세상

산불 재난이 말해 주는 듯 하네

아아아 괴롭고

통탄 스럽도다

착각 하지마라

정의正義와 천도天道

하늘에 있고

푸르른 하늘에서

백운白雲이 내려 보고 있다는 거

잊지마라!!!

〈팔공산방에서〉

또랑물 같은 내 인생

큰 강은 아니요

넓은 바다도 아니요

시원하게 흐르지도 않는

쫄쫄쫄 맑은

또랑물 같은 개울

폭우 내리면
구정물로 변하는
작은 또랑물 같은
실개천 이라고

버들치 송사리
미꾸리 물메기 살아가는
샘이 솟아오르는
꼬불랑 동리앞 지나가는
실개천이라고

넓은 강은 아닐지라도
비 그치면
마실 수도 있는
개구리 두꺼비 살아가는
깨끗한 샘물로 변하여 흐르는
동리 앞 실개천 이라고

꼬불랑 뒤틀리고
비탈길 굴곡진 물길이라도
굴곡지게 살아온
내 인생같은
실개천 이라고

봄이면 또랑가에
버들강아지 민들레꽃
크로바꽃 갈대꽃이

쑥부쟁이 냉이꽃 향기
노래해주는
내 인생 같은
실개천이래요.
〈팔공산방에서〉



白雲 김 영 민

사)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W.Y.M 사군자미술문화연구소 대표, 정선팔경도전 (KBS, MBC방영, 1987), 동경오사카정선비설경개인전(일본TV방영, 1991), 한국 미술문화대상전, 아시아 미협 초대작가(1981), 제4회 한류미술대전 특선 수상(2022), 《한강문학》 시부문 등단

신작詩
김은희

여정旅程 외 2편

목경牧璟 김 은 희

특별할 거 없는
심심한 나들이 길

산들바람 불어와 모란[牧丹] 꽃 피우니
귀한 꽃 마음껏 향유享有 하였네

거리마다 피어난 크고 작은 꽃들
가는 길 외로울까 길동무 되어 주네

나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원점도 갈무리 지점도 뭐 중요하리

나 여물지 못해
운명에 떠밀리듯 꾸려온 삶 속에
기꺼이 울타리가 되어 준 인연因緣들

지금 나는
그 꽃들과 함께 걷고 있다네.

봄맞이

산수유 꽃 피며
봄기운 몰려오더니
벚꽃 하얀 천장天障 만들고
노오란 개나리꽃
휘날어지며 손 인사 건넨다
복사꽃도 알알이 피어
방긋이 연분홍 미소 짓고 있네

어김없이 찾아온 봄
빨래 청소 미뤄두고
꽃들이 전하는 봄소식에
봄맞이 가야겠다.

할무니

주름진 손으로 만들어 주시던 술빵
지금도 내 미각은
달콤한 부드러움을 기억한다

내 사람아 내 사람아
영덩이 토닥여 주시던 울 할무니

자라서는
내가 할무니 지팡이 되어
할무니 마실 길이며
진외가댁 찾길이며
길동무 되었었다

이제 내가 할무니 되고 보니
가슴 깊이 묻어 뒀던
할무니가 되살아 난다

딱 한번 이라도
만져 보고픈 울 할무니.

牧環 김 은 희



호 牧環, 시인, 《한강문학》 38호 (2025.신년호)시부문 신인상 수상, (사)한국전
레원광주전남지원 부지원장, 광주금호사회복지관 한자강사, (사)평양민속예술단
광주부총재

신작詩

김 원

매춘시대.15 외 2편

우리들의 젊은 가을은
창백한 걸인들의 얼굴이 아니다
하얀 새털의 하늘이 열리고
홍시와 능금의 고요한 성숙이
샛별의 꿈을 닮아가는
부드러운 휘장의 무대이다
흥얼이는 추수꾼들의 마차가
준마처럼 황금별판을 내달리고
수수알의 불타는 연정이
끝없는 해후의 기쁨을 누리는
눈부신 대리석 신전의
경건한 모습과도 흡사하다
불가사의한 오묘한 시간의 축제
슬픈 매춘의 기억이 온통 사라진
허연 뱃살 바지춤에 드러난
박꽃 같은 백치의 웃음소리가
허무의 밭고랑에 푹푹 떨어지는
우리들의 붉은 가을은
남루하게 허리 굽어 초췌한
걸인들의 얼굴이 아니다.

매춘시대.16

잠 깨어난
세포핵 보다 조그만
이상한 일들의
바닷가 산책을 마주한다
유채색 빛들의 물결
생명의 축제가 한창인
먼 항성에서 외출했음을
골몰이 상상해 본다
냉혈한 재판의 설움과
가시 돛친 노예의 늑과는
전혀 무관할 것이다
무엇과 누구와의
신령스런 만남을 위해
팔과 다리도 없이
파도 소리에 귀를 열어
푸른 지구별의 모래밭을
공처럼 구르는 것이냐
이유를 질문할 수 없는
거룩한 집단행렬이다
나부끼는 영원의 깃발과
불의 아궁이로 활활 오르는
모정의 푯대를 향해
힘차게 행진 중 일지도
모를 일이다.

매춘시대.17

사랑은
기약 없는 마술사인가
포도주에 취한
달콤한 애증의 향기인가
폭풍우 몰아치던 밤
빈자들의 눈빛이 우글거리는
축축한 단칸방의 꽃이불 위에
반짝이는 은화 몇 개의
유혹을 젖무덤에 끌어 안고
알몸의 눈물을 온종일
장작개비로 태웠다
세상의 사랑은
사고 팔리는 핏물 같은
별안간의 미지에서 날아온
멈춤도 없는 욕망의
꿈들인가 화신들인가
애련히 꽃잎 지는
푸르게 물든 매춘의 밤은
너무나 깊고 길다.

한용운문학상 계관부문 수상 시집

지구인에 대한 견해

김원 시집



西村 김 원

한국문인선교회 회장, 현대시인협회 회원, 한강문학 편집고문,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세계여행작가협회 감사, 시전집《빛과 사랑과 영혼의 노래》, 시집《물방울 꽃들은 바다로 흐른다》, 연작시집《한강》, 《광화문 전설》, 《농무》, 《지구인에 대한 견해》, 한용운문학상 수상

독재자에게 고함 외 2편

황금빛 동상을 우뚝 세우고
은빛 주화에 너의 얼굴을 새겨 넣어도
네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한 일이 무어나고
세상은 물을 것이다
이끼 낀 비석碑石이나 무명용사의 목비木碑처럼
정의로운 죽음은 현화를 받아도
네 화려한 황금빛 동상은 어느 날 끌어내려 지리라
역사 속 독재자의 최후는 늘 그러했다
경계수위를 넘은 강물처럼
너의 자만은 지나쳤다
간밤의 꿈처럼 헛된 권력으로
부수고 빼앗고 짓누르고
협박하고 무시하고 과시하고
멸시하고 능멸하고 자화자찬하다
그 힘이 다할 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약자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모든 고통들은 연결돼 있음을
이 세상은 얽히고설켜어 있음을
네가 뺐었던 침들은 네게로 가고
네가 쏘았던 말들도 네 귀로 돌아가
너의 평화를 깨뜨리리라
네가 이루었던 에덴도 사라지리라

너의 절대 권력도 결국은 짧은 서사를 남기고
한 줄 평을 남기리라
'만인의 평화를 깨뜨린 혼돈의 화신'으로
세상은 한 줄 교훈을 남기리라.

숲 섬

섬은 땅에도 있다
원래 섬은 아니었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농지를 위해
숲에 불을 놓아 숲을 없애고
살던 것들을 내쫓는다
그리고 일부분이나마 녹지를 남겨 둔다
농지 한가운데의 작은 숲
미처 피하지 못한 생명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녹색이 주는 자신들의 그늘을 위해
농지의 일부를 양보한 것뿐이다
숲을 없애고 남긴 작은 숲은 섬과 같다
그나마 남은 생명들의 보금자리다
그러나 번성할 수 없는 막힌 지대다
가뭄에 모여든 작은 웅덩이 물고기처럼
어쩔 수 없는 생명들이 모여 혈떡이다
그러다 사라진다

먼지바람이 부는 날 인간들은 알 것이다
흙을 움켜쥔 뿌리들이 사라진 날부터
땅은 말라가고 있음을
생명들이 사라질 때 흙도 날아가고 있음을
숲이 막아 주었던 그 바람은
이제 곡식들을 마르게 하고
숲 섬의 죽은 나무 한 그루만이
울창했던 숲의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모르는 계약

90대 중반의 어르신은 간암 말기였다
정작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
복수가 차고 소화가 안 되면서 먹는 즐거움을 잃으셨다
평소 많이 움직이시던 일상은 화목 난로 앞 의자에 고정되어
불땀을 일으키고 그 타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셨다
불길이 사그라들면 다시 화목火木을 넣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셨다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세요?”
“무슨 생각이 뭐 있겠어? 그저 건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지”
간암 말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르신은 신념이 강하시다.



전 선 봉

《한강문학》15호(2019.신년호) 시부문 신인상 수상.
〈한두뺨미래문화창작소〉멤버

신작詩

김형식

스승의 날, 나에게

섬겨라

삼라만상
모두가 스승이다

물은
섬김의 미덕으로
바다에 이른다

섬겨라

그리하여
내 안에
세상을 모셔라.



印黙 김 형 식

시인, 문학평론가, 전남 고흥 출생, 전남대 농경제학과, 무불선학대 대학원 졸업, 성철스님 몽중상좌 해인총림 수좌 원용대선사로부터 법명 '인묵'을 받은 재가불자. '詩聖 한하운' 명명命名的 발제자, 詩聖 한하운학회 《보리피리》 편집주간, 고흥문화회 초대회장, 詩서울 자문위원장, 월간문학상 선정위원장, 한국문인협회 제도개선위원,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매한 율봉길사업회 지도위원, 한강문학회 편집고문, 대지문학 심사위원, 불야문부회장, 송파문협 시분과 위원장, 한글 문학 자문위원, 한국청소년 문학대상, 제2회 시서울 문학대상, 창작문학대상, 대지문학대상 수상, 1969년 현대문학 창작입문과정 이수, 2015년 불교문학에 詩 〈그림자 등지〉 외 4편으로 등단, 2020년 《한강문학》에 〈詩聖, 한하운의 어머니에 대한 소고〉로 문학평론가 등단, 시집 《그림자 하늘을 품다》, 《오계의 대화》, 《광화문 숲대》, 《글, 그 씨앗의 노래》, 《인두금근人頭琴의 소리》, 《성탄절에 108배》, 《질문》, 《無我的 강》 외, 이메일: hyeongsik2606@daum.net

금강전도 외 2편

호암 미술관에서
정선의 <금강전도>를 보노라니
산이 아니라 한 송이 큰 꽃이더라

크기가 다르고
먹물의 짙고 열음이 있는,

철마다 풍경 분위기가 달라
금강산, 봉래산, 풍악산, 개골산으로 불리듯
산들이 둘러앉은 모란 꽃잎이더라

천하에 없는
다만 한 송이 ‘금강산꽃’

첩첩이 산봉우리, 큰 겹꽃이더라.

우물이 있던 풍경

한옥 부엌문을 열면 뒤꼍엔 우물이 깊었다

시어른들은 퍼 올린 물로 소세를 하셨고
여름엔 수박이나 참외, 갓 담근 김치를
긴 줄에 매달아 우물 속에 넣었다 먹으면
그 시원함을 무엇에 비할까만
너무 깊어 퍼런 바다가 때론 무섭기도 했다

시골 문화와 우물을 길어 올리는 것을 재미있어 하니
어머님은 불 때서 지은 밥이 고슬고슬 맛있다면
별 뜨거운 날 우물가 옆에 큰솥을 걸어주셨다

한복차림에 청솔가지로 불을 때는 것은
매운 연기 속에서 별을 서는 일이었지만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물일은 우물가에서 이루어졌다

세월이 시냇물처럼 흘러
오래전에 우물을 덮었지만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던
퍼런 우물에 비치던 해가 사물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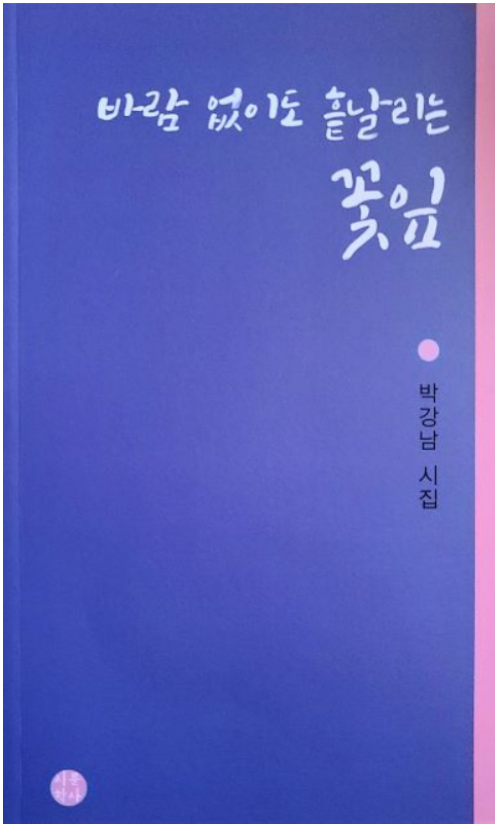
낮선 비행

발이 영킨 찰라
천체에서 튕겨져 가볍게 구르며
지구로 하강을 시작해

충격을 적게 하려
본능적으로 몸을 동그랴게 말았다
다급하여 아무 버튼이나 눌러 멈추려 했으나
급강하 하는 순간
어둠이 더 밝은 빛이라는 환청이 들려와

죽음과 맞닿은 곳에서
한 줄기 생각을 밧줄인 양 끌어당겨
낙하산 날개를 폈을 때
우당탕탕 사방에 몸과 머리를 부딪혀
초록빛 피를 흘려도 급기야 발이 땅에 닿아
비행이 끝난 안도감에 이제 살았구나...
그러나 나는 지구인이야 외계인이야?

살면서 이런 체험 또 할까 두렵다
아니,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큰 지각변동이었다.



박 강 남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한글문학회 이사, 농민문학 운영이사, 국제계관시인연합한국본부회원, 서울특별시 지하철 시 6회 선정, 글핀샘문학 회장역임.

시집: 《바람 없이도 흩날리는 꽃잎》(2020, 시문학사) 외 4권, 수상: 영랑문학상본상(2013), 농민문학작가상(2021) 외

mobile 010 7266 8285, E-mail: pkn1213@hanmail.net

Ⓢ1205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해밀예당 1로 51 자연앤어울림@1308동 1203호

신작詩
김광춘

꽃씨 품은 마음씨

숲속 오솔길
이팝나무 꽃잎
눈부시고

앞산 오동나무
보랏빛 황제 왕관 빛
번쩍이네

향기 품은 송이송이
날 반겨 웃어주는
아카시아

밭갈이 흙 돋우며
손놀림 분주한 파종

가을의 기쁨을
보려 하는 욕심 없는
농사꾼 마음씨

봄 가뭄에 목마른 텃밭
하얗게 질려 날려도

보리콩* 꽃피우고
감자순 부쩍 자라났네

엇그제 심어 논 고추
토마토, 수박 모종 보며
비오길 빌어 불제

숲속 그늘 밑 차려놓은
조출한 아침상 보니
절로 기운 돌아나네

일 마친 저녁나절
취, 오가피, 미나리 순 뜯어

힘겨워 지친 마음
다독여 줄 농주 생각
발걸음마저 가벼워진다.

*보리콩: 완두콩의 제주 방언



김 광 춘

국제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우리은행(중앙구청지점 지점장) 정년퇴직, 한국기독교루터교선교부재단 재무국장 역임, 현재 ㈜동산스틸 대표이사/ 한국골프지도자 자격 취득(한국골프연습장협회), 《한강문학》(2018) 시부문 신인상 수상,

신작詩

권녕하

나도밤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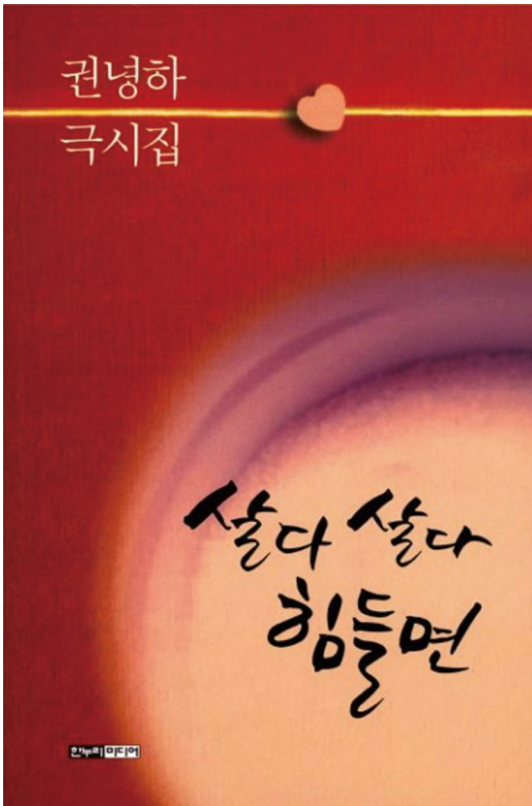
널 위해서 나도밤나무 했을까
넌 위해서 너도밤나무 했을까

있을 곳에 있지 못하고
없을 곳에 버터 내느라

누가 널 흘겨나 볼까
낮에 뜬 달을
누가 널 췌겨나 줄까
밤에 핀 애기똥 풀꽃을

산다는 게
나도
말짱
밤나무였구나

살았다는 게
너도
그저
밤나무였구나.



韓江 권녕하

호: 용강龍江, 저동苴童, 갯벌, 한강韓江, 시인, 문화평론가, 《한강문학》 발행겸 편집인, 詩集《숨어 흐르는 江》(1994, 도서출판 준), 劇詩集《살다 살다 힘들면》(2017, 한누리미디어), 산문집 《겨울밤, 그 따뜻한 이야기들》외, 역서:《세일즈맨의 죽음》(A. 밀러), 《파리떼》(J.P. 사르트르)